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池在元

헤어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어커트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the Model of hair design

- Focused on hair cut -

2002年 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河 京 延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池在元

헤어디자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헤어커트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the Model of hair design

- Focused on hair cut -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月 日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河 京 延

河京延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 국 문 초 록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단하게 이어져 온 인간의 본능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의상·화장·헤어미용 등은 그와 같은 인간의 미적 본능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 표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용에서 헤어디자인은 패션과 함께 한시대의 생활과 문화적 양식, 예술적 양식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며, 특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의상·화장·액세서리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토털 패션 차원에서 고려되어지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인체의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므로, 헤어디자인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이미지가 개선되거나 본래의 이미지가 감소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얼굴형태의 특징에 따라 각각 다른 헤어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헤어미용의 실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개화기 이후 서양문물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현대 헤어미용의 다양한 기법들이 해외의 신기술과 유행을 반영하면서 변화되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실무적 차원에서의 성장에 비하여 그 기술력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학문적 차원에서의 기반이 다소 약하다는 인식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헤어디자인이란 얼굴형에 따라 각각 다른 커트 기법이 적용됐을 때 디자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설 아래, 헤어커트에서도 다른 조형분야와 같이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에 근거한 설득력 있는 조형기법의 토대 마련의 필요성에 의하여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얼굴형태의 특징이 다른 실제 모델에게 일반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제작하여 이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바우하우스의 조형 원리를 헤어디자인

실무에 응용한 영국 비달사순의 헤어커트 기법, 그리고 복식디자인의 조형원리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작품제작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 커트 디자인에서 얼굴의 형태적 조건에 따른 선의 활용은 시술전의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중요한 요소이었다.

둘째, 얼굴형태의 특성에 근거한 디자인 요소와 원리의 활용은 시술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시술자의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셋째, 헤어커트디자인에서 도식화는 다양한 디자인 전개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피 시술자가 디자인에 대한 호오(好惡)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거두게 하였다.

넷째,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하여 제시된 얼굴전체의 이미지 제시는 시술후의 모습까지도 예견케 함으로써, 시술후 야기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불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한 한계점은 패션을 비롯한 다른 조형분야처럼 헤어디자인, 특히 커트를 중점적으로 다룬 선행연구가 극히 부족하였다는 점과, 미에 대한 가치 척도가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시술자와 피 시술자가 아닌 제 3자의 시각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제시된 작품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미지 측정 조사가 후속연구로 이루어진다면 헤어커트 디자인 기법의 토대마련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헤어디자인의 변천사	5
2. 비달사순 헤어디자인의 특성	6
III. 헤어디자인 프로세서	10
1. 디자인의 정의	10
2. 헤어컷트의 디자인 원리	27
3. 헤어컷트디자인의 구분	35
4. 헤어디자인을 위한 얼굴 형태별 분류	39
IV. 작품제작	45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45
V. 결론	82
참고문헌	85
부록	89
영문초록	90

## 그림 목 차

그림 1. The Five point cut	7
그림 2. 굽은 선을 이용한 커트	17
그림 3. 가는 선을 이용한 커트	17
그림 4. 모발의 장단에 따른 변화	17
그림 5. 곡선에 의한 커트	17
그림 6. 직선과 곡선에 의한 커트	18
그림 7. 사선에 의한 커트	19
그림 8. 분할의 원리 I	20
그림 9. 분할의 원리 II	20
그림 10. 분할의 원리 III	20
그림 11. 그린지 록	22
그림 12. 레트로	22
그림 13. 크로스 오버록	22
그림 14. 슬랜드	22
그림 15. 질감 표현 I	24
그림 16. 질감 표현 II	24
그림 17. 질감 표현 III	24
그림 18. 슬라이싱	25
그림 19. 포인트커팅	25
그림 20. 트위스트	25
그림 21. 스트록	25
그림 22. 유사조화	29
그림 23. 대비조화	29
그림 24. 대칭	31

그림 25. 비대칭	31
그림 26. 울동	32
그림 27. 점증	32
그림 28. 강조	33
그림 29. 대조	33
그림 30. 길이에 의한 착시	33
그림 31. 수직에 의한 착시	34
그림 32. 수평에 의한 착시	34
그림 33. 사선에 의한 착시	34
그림 34. 원랭스(수평 라인)	35
그림 35. 이사도라(등근 라인)	35
그림 36. 스파니엘(사선 라인)	35
그림 37. 낮은 그라데이션	36
그림 38. 중간 그라데이션	36
그림 39. 높은 그라데이션	36
그림 40. 기본 레이어	37
그림 41. 그라데이션 레이어	37
그림 42. 아웃 레이어	37
그림 43. 사선과 사선의 만남	38
그림 44. 사선과 등근 라인의 만남	38
그림 45. 사선과 일자 라인의 만남	38
그림 46. 그라데이션과 레이어	39
그림 47. 원랭스와 그라데이션	39
그림 48. 두상의 골격구조	40
그림 49. 얼굴 형태 분류	42
그림 50. 작품 I의 시술전 사진	46
그림 51. 작품 I의 도식화 1	46

그림 52. 작품 I의 도식화 2	46
그림 53. 작품 I의 일러스트레이션	47
그림 54. 작품 I의 시술후 사진(정면)	48
그림 55. 작품 I의 시술후 사진(측면)	48
그림 56. 작품 II의 시술전 사진	49
그림 57. 작품 II의 도식화 1	49
그림 58. 작품 II의 도식화 2	49
그림 59. 작품 II의 일러스트레이션	50
그림 60. 작품 II의 시술후(정면) 사진	51
그림 61. 작품 II의 시술후(측면) 사진	51
그림 62. 작품 III의 시술전 사진	52
그림 63. 작품 III의 도식화 1	52
그림 64. 작품 III의 도식화 2	52
그림 65. 작품 III의 일러스트레이션	53
그림 66. 작품 III의 시술후(정면) 사진	54
그림 67. 작품 III의 시술후(측면) 사진	54
그림 68. 작품 IV의 시술전 사진	55
그림 69. 작품 IV의 도식화 1	55
그림 70. 작품 IV의 도식화 2	55
그림 71. 작품 IV의 일러스트레이션	56
그림 72. 작품 IV의 시술후(정면) 사진	57
그림 73. 작품 IV의 시술후(측면) 사진	57
그림 74. 작품 V의 시술전 사진	58
그림 75. 작품 V의 도식화	58
그림 76. 작품 V의 일러스트레이션	59
그림 77. 작품 V의 시술후 사진(정면)	60
그림 78. 작품 V의 시술후 사진(측면)	60

그림 79. 작품 VI의 시술전 사진	61
그림 80. 작품 VI의 도식화 1	61
그림 81. 작품 VI의 도식화 2	61
그림 82. 작품 VI의 일러스트레이션	62
그림 83. 작품 VI의 시술후 사진(정면)	63
그림 84. 작품 VI의 시술후 사진(측면)	63
그림 85. 작품 VII의 시술전 사진	64
그림 86. 작품 VII의 도식화	64
그림 87. 작품 VII의 일러스트레이션	65
그림 88. 작품 VII의 시술후(정면) 사진	66
그림 89. 작품 VII의 시술후(측면) 사진	66
그림 90. 작품 VIII의 시술전 사진	67
그림 91. 작품 VIII의 도식화 1	67
그림 92. 작품 VIII의 도식화 2	67
그림 93. 작품 VIII의 일러스트레이션	68
그림 94. 작품 VIII의 시술후(정면) 사진	69
그림 95. 작품 VIII의 시술후(측면) 사진	69
그림 96. 작품 IX의 시술전 사진	70
그림 97. 작품 IX의 도식화 1	70
그림 98. 작품 IX의 도식화 2	70
그림 99. 작품 IX의 일러스트레이션	71
그림 100. 작품 IX의 시술후(정면) 사진	72
그림 101. 작품 IX의 시술후(측면) 사진	72
그림 102. 작품 X의 시술전 사진	73
그림 103. 작품 X의 도식화 1	73
그림 104. 작품 X의 도식화 2	73
그림 105. 작품 X의 일러스트레이션	74

그림 106. 작품 X의 시술후(정면) 사진	75
그림 107. 작품 X의 시술후(측면) 사진	75
그림 108. 작품 XI의 시술전 사진	76
그림 109. 작품 XI의 도식화 1	76
그림 110. 작품 XI의 도식화 2	76
그림 111. 작품 XI의 도식화 3	76
그림 112. 작품 XI의 일러스트레이션	77
그림 113. 작품 XI의 시술후(정면) 사진	78
그림 114. 작품 XI의 시술후(측면) 사진	78
그림 115. 작품 XII의 시술전 사진	79
그림 116. 작품 XII의 도식화 1	79
그림 117. 작품 XII의 도식화 2	79
그림 118. 작품 XII의 일러스트레이션	80
그림 119. 작품 XII의 시술후(정면) 사진	81
그림 120. 작품 XII의 시술후(측면) 사진	81

# 서 론

## 1. 연구 목적

헤어디자인은 겉모습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싶다는 인간의 장식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사람의 가치 척도로서 외모가 중시되는 외모지상주의적 의식이 팽배해져 가면서<sup>1)</sup> 외적 이미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외모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맥카커(McKeachie.1952), 하미드(Harmid.1972), 조바(Jouhar)와 그라함(Graham. 1985), 워터스(Waters.1985) 등에 의한 실험을 통하여 밝혀진 바 있는데, 그들은 외모 개선 수단으로서의 화장·헤어스타일·안경 등을 사용한 자극물을 조작하여, 이에 따른 피험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사람의 전체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외모 장식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며, 그러한 외적 이미지 연출은 직장에서의 급료수준까지 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sup>2)</sup>.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성미 표현의 한 방법으로 헤어디자인 분야가 세분화·전문화되어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더욱이 1950년대 이후 등장한 비달 사순은 헤어 커트가 디자인의 한 분야로 발돋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sup>3)</sup>. 특히 60년대 이후 발표한 새로운 기법의 커트라인들은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으로 헤어 커트에 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헤어디자인의 유행 트렌드를 이끌어내는 축으로서 서양은 물론 동양의 헤어스타일에까지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달 사순 기법은 기하학적인 선의 흐름에 의한 조형미를 강조한 커트라인이 특징이다. 머리를 단순히 ‘자른다’라는 개념이 아닌 디자인 원리를 체계적

1) 중앙일보, 2002, 8.8

2) 이연희, 이운영, 『현대인의 이미지메이킹』, 2002, 청구문화사, pp9~10

3) Beauty & Health 연구회, 비달사순 50년사, 2001, 현문사, pp14~17

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이는 곧 현대 조형디자인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바우하우스의 조형원리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sup>4)</sup>. 이와 같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의 커트기법은 헤어스타일을 독립적인 개체로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체 이미지와의 조화는 물론 인간의 감성까지도 표출하는 신체 장식의 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sup>5)</sup>.

따라서 본 연구는 외모장식의 수단 중 헤어스타일이 개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는 국내외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실무 수행에서 커트를 통한 헤어스타일 연출이 디자이너의 경쟁력 제고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경험적 사례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더욱이 고급 미용 문화시대에 적합한 전문 디자이너로 직업적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 헤어디자이너의 위상을 감안할 때, 디자인 활동으로서의 체계적인 커트기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얼굴 유형과 두상 구조는 물론, 시대적 흐름에 맞는 헤어 커트 디자인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인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헤어디자이너에게 응용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디자인 요소와 원리에 따른 헤어 커트스타일 연출의 방법과 이에 대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헤어커트 기법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헤어스타일 연출이 표정 있는 사람의 얼굴에 행하는 것이므로 피시술자의 개성 표현은 물론 시술자의 기술개발과 창의력 증진에 도움을 줌으로써 실무에서 헤어디자이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비하여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헤어커트 기법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Vidal Sassoon and Bauhaus, Cantz, vetlag, senefelder, str. 9, 73760, ostfildern, in the USA, p.36

5) 비달사순 50년사, 2001, 현문사, p.28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현대 헤어컷 디자인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비달사순 기법의 특징을 고찰하고, 헤어 컷 디자인의 설득력있는 이론적 근거를 더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와 메이크업 관련 논문들을 참고로 하였으며 패션을 중심으로 한 다른 조형 분야의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파악한 후, 이를 6가지 얼굴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커트 기법을 적용하여 시술한 작품 사진을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작품들은 개개인의 고유미와 개성미 강조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작품제작을 통한 개인의 이미지를 보완·개선하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효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고급전문직으로서의 헤어디자이너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방법은 계란형, 둥근형, 긴형, 다이아몬드형, 역삼각형, 네모형 등 6개의 얼굴형을 가진 남녀 각 6명씩 모두 12명의 모델을 선정하여 이들의 얼굴조건과 특성에 따른 선, 색, 질감의 디자인 요소와 조화, 균형, 율동의 디자인 원리에 입각한 헤어컷 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3 종류의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여 시술자와 피시술자간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3가지 유형의 디자인 중, 최종 1 개를 선정하여 시술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I 장**은 서론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II 장**은 비달사순과 바우하우스에 대한 연구와 20세기의 년도별 특징있는 스타일을 중심으로 헤어디자이너의 변천을 기존 문헌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살펴해보았다.

**III 장**은 헤어컷프로세스로 헤어컷디자인의 조형성을 알아보고, 헤어컷스타일과 커트라인의 구분과 특징, 헤어컷에서 디자인 요소의 형태, 질감, 색

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디자인의 원리에 입각하여 조화의 원리, 균형감의 원리, 율동감의 원리를 헤어스타일의 스타일별 사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IV**장은 헤어커트스타일의 디자인 원리에 따른 얼굴 형태 이미지 변화의 시각적 효과와 얼굴 형태 분류, 디자인 구성요소를 적용시킨 헤어 커트 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헌에 대해 고찰, 분석했다.

V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사실에 근거한 작품제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진자료, 도식화,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은 시각적 자료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실질적 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헤어디자인의 변천

헤어스타일은 시대, 민족, 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낸다.

전선정은 고대 이집트에서 현대까지 서양 여인들의 머리 형태와 머리장식의 변화 과정을 고찰한 연구에서 시대적 상황이 헤어스타일의 유행에 영향을 주었다<sup>6)</sup>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김은희는 서양 복식사의 흐름에서 가장 화려하였던 근세(16~18세기)의 머리 형태와 머리 장식의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각 시대에 따른 형태의 특징을 서술하였다<sup>7)</sup>.

서양 복식사를 통하여 볼 때, 헤어스타일에서 커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제시는 20세기에 이르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8)9)</sup>. 즉 1920~1945년까지의 세계 양대 전쟁기간에는 이튼 크롭(Eton crop)·숏 밥(short bob)·가르손느(garçonne), 크로쉐 햇(cloche hat), 페이지 보이(page boy) 헤어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전쟁이후 1960년 초까지의 기간에는 프렌치 트위스트(french twist), 숏 헤어(short hair), 롱 스트레이트헤어(long straight hair)<sup>10)</sup>, 그리고 1960년대 중반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친 비달사순의 다양한 기하학적인 컷(short hair cut) 스타일<sup>11)</sup>과 70년대의 핑크 그리고 20세기 말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나타난 양성화(兩性化) 경향으로 변화되어왔다<sup>12)</sup>.

---

6) 전선정, “서구 여성의 머리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7) 김은희, “여성의 머리형태와 장식에 관한 연구”, 1994,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8) Francois B.(198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New York: Thames and Hudson Ltd, pp. 213~276.

9) Robim Bryer, *The History of Hair*, Phillip Wilson, 2000, pp.108~139

10) Prestel Verlag, *Icone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Munich·London·New york

11) Vidal Sassoon and Bauhaus, Cantz, vetlag, senefelder, str. 9, 73760, ostfildern, in the USA, pp.4~12

12) 이연희 외, 『패션문화』, 예학사, 2002, pp.140~186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헤어커트는 개화기 이후 서양이나 일본 유학파들로 인하여 서서히 도입되었으나 그 수용층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디자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었다<sup>13)14)</sup>.

그러므로 국내 헤어커트 디자인은 7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의복이나 헤어스타일을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미용인들이 국내외의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시대 상황 변화에 따른 미용인의 자세변화는 헤어디자인에서 커트의 중요성을 일깨웠을 뿐 아니라 커트 기법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확장시켜, 모발을 각도에 의해 나누는 기하학적인 섹션기법의 활용<sup>15)</sup>을 통한 시술을 일반화시켰는데,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비달 사순 커트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 2. 비달사순(Vidal Sasson) 헤어디자인의 특성

커트스타일을 기하학적인 형태로 발전시킨 비달사순은 커트디자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 상류사회와 서민, 정교함과 예술성, 상류사회 패션간의 격차를 해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sup>16)</sup>. 비달사순의 창의적인 커트기법은 현대조형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조형학교 바우하우스(Bauhaus)의 교육내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바우하우스의 건축조형에서 강조되었던 고층건물의 밝기, 명확한

13)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pp.337~370

14) 민봉기, 『연대별로 본 헤어 변천. 한국생활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1995, pp.79~92

15) 이기봉, “서울 올림픽이 한국 미용계에 미친 영향” 한국 인체 예술학회지, 2002, 제3권 1호, p.154

16) Vidal Sassoon and Bauhaus, cantz, verlag, senefelder, str. 9, 73760, ostfilsern, in the USA, p.36

기하학, 실행의 정확성 등은 비달사순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비달사순이 바우하우스를 이해하는 관점은 공간적 차원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관점은 도시환경을 고려한 건축조형 수행과 같이 헤어스타일 또한 얼굴형태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형태디자인에서 조형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sup>17)</sup>.



<그림1>파이브 포인트

Vidal Sassoon, five point cut, 1964

이에 따라 그는 아름다운 머리카락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자기의 인습적인 관념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개인적인 공간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얼굴과 두개골의 구조, 의상과의 조화, 시대정신의 중요성, 일상적인 욕구의 고려 등 이러한 방법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념은 헤어 부분의 혁명과 함께 헤어드레스 직업을 위한 중요한 선구자로서의 시작을 가져왔다.

바우하우스의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커트스타일이 1964년에 발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파이브 포인트(five point cut)라고 칭해지고 있다.

이 스타일의 특징은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완벽하고 복잡하게 시술된 커트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얼굴 한 쪽 측면에 고정된 두 포인트와 백(occipital) 부분의 다른 세 부분이 다른 각기 세 포인트와 측면에 하나, 목덜미에 하나의 포인트를 표현하였다.

비달사순이 파이브 포인트를 발표하였던 이 시기의 대중적인 헤어스타일은 장식성이 요구되는 헤어 피스로 강한 웨이브를 연출시킨 업(up)스타일이었으며, 그러한 스타일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살롱을 방문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지배적인 스타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발형의 밥(bob) 스타일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의상디자이너(fashion designer)가 신체구조를 구상하는 것처럼 비달사순은

17) Vidal Sassoon and the und das Bauhaus, Vidal Sassoon, Cantz, 1982, p.54

두상의 구조를 구상하였고 의상디자이너가 천(cloth)을 재단하는 것처럼 비달사순은 머리를 커트하였다.

송부자<sup>18)</sup>는 비달사순의 혁명을 선(線)의 혁명이라고 평하였는데 이는 헤어의 형태를 선으로 느끼고 모델링하기 때문에 유연성 있고 움직이는 형태의 모발을 조형적 요소에 의한 디자인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달사순이 바우하우스의 엄격한 선과 기하학적인 상상력의 성역에 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수 있다.

비달사순은 헤어커트로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복잡한 뼈의 구조와 얼굴골상학, 예민한 움직임에도 영향받는 머리카락의 손실 등에 대한 논리적인 연구에 기초한 커트의 다양한 시술법을 시도하였으며,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그의 디자인 세계의 폭을 넓혀주었음은 물론 이를 통해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비달사순의 철학은 커트디자인을 할 때 모델의 두상 골격구조나 모델의 신체 프로포션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화되는 헤어디자인을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기능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비달사순의 노력이었으며 그는 “진정한 미용인이라면 미용에 대한 지식과 미용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하는 것”<sup>19)</sup> 이야말로 미용업계의 혁신과 독창성을 고무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다. 비달사순 자신 또한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온 이러한 철학적, 교육적 계몽으로서의 기본 원리를 강조하였다.

얼굴구조의 특성과 그 움직임에 따른 형태적 변화까지 고려한 그는 헤어커트 디자인에서의 혁명을 이루어냄으로써 그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그의 구조적 디자인은 모발세척과 간단한 빗질로 최소한의 스타일링을 통해 항상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스타일 추구에 있었다<sup>20)</sup>.

이에 따라 기능적이고 표준화된 스타일로서 일상화된 헤어커트스타일에 자

---

18) 미용신문, 2002, 제 166호, p17

19) Vidal Sassoon, 앞의 책, p56

20) Vidal Sassoon and the und das Bauhaus, Vidal Sassoon, Cantz, 1982, p54

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우하우스의 교육이념인 재료에 형태를 주려는 의지와 거기서 생겨나온 형태 사이에 확립되는 통일성을 헤어디자인에 접목시켰다. 또한 단순함을 목적으로하는 모더니즘과 같이 헤어디자인에서 커트라인의 단순성을 강조하는 테크닉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선천적인 모질의 특성 즉, 재질에 따라 커트디자인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그의 철학적인 성향과 더불어 현대적 스타일의 창조를 위한 노력에 의해 현재에도 그의 작품들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기본 커트스타일을 응용한 스타일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아름다움과 함께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행 흐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Ⅲ. 헤어디자인의 프로세스

#### 1.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이란 의장, 도안, 밑그림, 의도적 계획 및 설계, 구상 등의 넓은 뜻으로 조형계획을 의미하며, 인위적·합목적성을 지닌 창작행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조형과 디자인의 원리, 구성의 원리는 인간의 생리학적 유쾌 또는 불쾌의 감정적인 원동력에서 출발된 모든 사람의 공통된 미적 향상성을 추구하는 것<sup>21)</sup>이라고 하였다.

정시화는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조형요소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의 실체가 곧 디자인<sup>22)</sup>이라고 언급하였다.

어의론(語義論)적 의미를 살펴보면 디자인은, 기본적 의미 또는 이미지를 계획 혹은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정한 목적을 마음속에 품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세우는 일련의 행위개념을 말한다. 특정한 관념을 실체화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보조수단을 가지고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관념의 전환일 수도 있다<sup>23)</sup>.

디자인이란 물건을 만들기 전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목적에 합치하는 조형의 과정을 일관하는 계획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디자인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판매를 목적으로 실제로 제작 유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디자이너가 제작했다라도 전시회를 목적으로 제작된 디자인은 엄밀히 말해서 디자인이 아니며 이와 반대로 예술가의 작품이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했다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sup>24)</sup>.

그러므로 디자인은 주위에 있는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시각화시

21) 봉산균, 『기초디자인』, 조형사, 1992, p22~23

22)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미진사, 1997, p27

23) 민 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p22

24) 우이우스윙, 『디자인과 형태론』, 국제, 1994, p46

키는 작업으로 미를 추구하는 예술과는 다르게 기능을 먼저 생각하면서 아름다움과 함께 생활의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미(美)만 강조하여 기능을 무시하거나 기능만을 생각하여 시각적인 부분을 무시한다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미와 기능을 종합하여 작업하는 것이기도 하며 공학적인 성격과 예술적인 성격의 조화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1) 디자인과 헤어디자인

헤어디자인은 토털 패션의 한 요소로서 좁게는 전체 패션의 영향을 받으며, 넓게는 시대적 배경과 그 사회의 문화,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변화한다.

헤어디자인 또한 패션이나 건축 등과 같은 디자인의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들과는 다소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패션이 천이나 편직물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져 신체에 더하여지는 부가장식물이며, 건축이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반하여 헤어 디자인은 신체의 한 요소에 직접 가해지는 표현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헤어디자인은 살아있는 사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헤어디자인은 다른 어떤 디자인 영역보다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헤어디자인은 모델에게 적합한 디자인 창출을 전제한 후 거기에 미적 추구나 유행 등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헤어디자이너는 전체 두상과 얼굴형에 근거한 이미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디자인을 계획한 후, 계획한 스타일을 스케치 한 다음 이를 피시술자에게 제시하여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디자인을 결정하고, 시술작업을 수행함으로써 헤어스타일 연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실무에서 피 시술자의 얼굴조건에 따른 디자인 창출은 전문 헤어디자이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디자인 계획 수행

의 필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헤어디자인은 인간의 두상과 얼굴형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학적인 분석력과 이를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조화로운 능력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형 디자인의 이론과 유사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아름다운 헤어디자인의 구성은 객관성 있는 창작의도와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피시술자로 하여금 시각적,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디자인 요소와 헤어디자인

### (1) 디자인 요소의 중요성

헤어 커트를 통한 아름답고 개성있는 얼굴표현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신체적 조건에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조화시킴은 물론, 그것에 적절한 변화를 주었을 때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의복, 화장 그리고 헤어스타일은 인간의 신체에 가해지는 대표적인 장식행위이다. 그 중에서 의복은 인체에 가해지는 부가장식물이며, 화장과 헤어스타일은 주어진 인체에 행해지는 직접적인 장식이라는 차이점을 가진다<sup>25)</sup>. 즉 화장이 피부에 화학적인 물질을 덧바르는 행위라면, 헤어는 주어진 모발에 물리·화학적인 작용을 더하여 그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색을 바꾸는 행위이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디자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즉 헤어디자인은 모발이라는 소재에 일련의 조형활동을 수행해나가는 것으로, 개인의 고유미를 부각시키거나 개성미를 강조함으로써 전체 이미지를 개선시킨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러므로 헤어디자이너는 피시술자의 아름다운 부분을 강조하고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얼굴형태와 두상의 흐름 파악에 근거한 스타일을 디자인하여야 하며, 이 때 디자인요소인 형태, 색채, 질감에 관

25) 이연희·이운영, 『현대인의 이미지메이킹』, 청구문화사, pp.9~10

한 신중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헤어디자인에 있어서 큰 의미로 형태(style)는 헤어컷, 색채는 헤어 염색, 질감은 헤어 폼에 비유할 수 있지만 작은 의미로 헤어 컷에서의 형태란 전체 머리형을 이루는 스타일 즉 헤어 폼(form)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색채란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으로 변형된 머리색을 의미한다. 그리고 질감이란 모발의 강·약 상태나 직모 또는 곱슬 등과 같이 자연모발에 의하여 나타나는 텍스춰(texture)와 퍼머에 의하여 나타나는 웨이브 등에 의하여 형성된다.

## (2)디자인 요소의 이해

디자인 요소는 형태, 색채, 질감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각 요소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형태

형태에는 구상적 형태와 추상적 형태가 있다<sup>26)</sup>. 첫째, 구상적 형태는 구체적인 형태의 의미를 내포하며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사물 꽃, 동·식물, 조개 껍질, 나무모양 등의 객관적인 실물에 적용한 형태를 말한다. 이를 헤어디자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순수한 헤어 커팅으로 본질적 형태 그대로의 모질, 모류, 두상의 조건, 모양의 특성을 살리는 스타일을 들 수 있다.

둘째, 형태는 기하학적인 것과 비기하학적인 것으로 나눌 수도 있고, 고유한 형태, 변형된 형태, 창조적인 형태로 나눌 수도 있다<sup>27)</sup>. 이들을 헤어스타일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기하학적인 헤어스타일은 커트의 기본형태 라인을 강조한 커넥션 커트스타일이며, 비 기하학적인 것은 커트스타일의 기본형태를 무시하고 모발 끝처리를 아주 가볍게 한 디스커넥션 스타일을 의미한다.

헤어스타일과 관련한 비기하학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고유한 형태는 태생의 정밀묘사를 의미할 수 있는데 헤어스타일에서는 커트디자인과 비교할

26) 권상구, 『기초디자인』, 미진사, 2002, p91

27) 권상구, 앞의 책, p90

수 있다. 변형된 형태는 정물화, 유화 등을 의미하고 물체에 작가의 의도에 의해 색채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디자인 요소에 의한 커트와 염색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인 형태는 비구상이나 추상화와 비유할 수 있고 커트라인의 형태를 무시한 개념의 디스커넥션과 비유할 수 있다.

헤어커트디자인의 구상적 단계에서는 입체적 형태, 즉 모델 두상의 조건, 모질, 모류, 모양의 특성을 파악한 뒤 평면적인 얼굴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이게 연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의 이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각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추상적 형태는 수학적인 법칙과 함께 뚜렷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스타일 중심의 기하학적인 헤어스타일을 연출 하려면 변형된 형태와 창조적 형태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조형디자인에서와 같이 헤어커트디자인에서도 점, 선, 면의 역할은 전체 형태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므로 이들 각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 ①점

헤어스타일에서의 점은 그 스타일의 포인트를 뜻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형태의 크기와 길이의 끝 부분을 점으로 가정하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시각적 효과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수평선상의 두 개의 점은 안정감을 주게되고 대각선상의 두 개의 점은 동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어 율동감을 부여한다.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점은 큰 점이 헤어스타일의 포인트 역할을 하며 큰 점과 작은 점의 강·약이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 전체적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 ②선

선은 점과 점이 이어졌을 때 형성된다. 헤어디자인에서는 점의 이동 방향이 일정한 것을 직선, 그와 반대로 선의 방향이 변화하는 것을 곡선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선은 방향성에 따라 운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선의 방향에 따라 수직선, 수평선, 사선으로 나눌 수 있다. 입체감은 평면의 표면적인 선의 윤곽에 의해서 규정된다.

선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는 각 선의 형태적, 정서적, 기능적 특성을 이해하여야 한다. 형태적으로는 선이 직선인가, 곡선인가, 사선인가 등이 문제가 되며 정서적으로는 어떤 선을 주제로 전체를 지배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sup>29)</sup>.

선의 구성은 하나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을 잘 다루는 가, 잘 다루지 못 하는가에 따라서 얼굴형태와 두상의 흐름에 따라 아름답게 보이게 또는 추하게 보이기도 한다. 또한 전체 스타일 연출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 하나의 선은 입체적인 두상 흐름은 물론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선을 잘 다룰 수 있는가를 알기 전에 선 그 자체의 성격부터 고려해야 한다.

각 선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커트 디자인의 기법에 활용시켰을 때, 다양한 커트디자인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 ㉠ 직선을 이용한 커트

직선은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나눌 수 있다. 직선은 일반적으로 차가움, 강렬함, 딱딱함을 느끼게 하고 긴장감을 주기도 하며 거칠고, 단조로움을 주기도 하는 특징을 지닌다.

수직선은 상·하로 그을 수 있는 선으로 높이를 강조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길어지는 듯한 고상함, 교만함, 숭고함, 놀라움, 엄중함, 엄격한 권위 등을 나타내는데 반해, 수평선은 평화, 영구, 정숙, 안정의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헤어커트 디자인에서는 높이감을 주며 어른스럽고 지적인

28) 지상기, 『커트론·학』, 1999, p263

29)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2000, p.51



<그림 2> 짧은 선의 커트  
VidalSassoon, Graduated BoB



<그림 3> 가는 선의 커트  
Zone And Section, p040

와 같이 수평선을 강조한 헤어커트스타일은 원랭스(one length) 스타일로 층이 지지 않고 무거운 라인이므로 평온하고, 완만한 느낌을 준다. 계란형의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린다.

짧은 선은 강한 인상과 더불어 안정감을 주는 특징이 있으나 무겁고 둔탁함, 느리고 답답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그림 3)과 같이 층이 많은 레이어 커트 기법은 볼륨감과 울동감을 나타낸다. 즉, 각 층이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거운 라인의 원 랭스 커트와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레이어 커트는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유행스타일인데, 이는 고급스럽고 여성적이며 발랄한 느낌을 주는 동시에 예리하고 야성적인 효과까지도 연출함으로써 현대여성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될 작품 또한 레이어 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수직선으로서의 헤어커트스타일은 (그림 4)와 같이 길고 짧은 선을 포인트로 하여 롱 스타일을 연출한 것으로서, 여성적이고 우아한 느낌을 줌과 동시

감각을 연출할 수 있다.

수평선은 폭이나 넓이를 강조함으로써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는데, 헤어스타일에 수평선을 적용하면 이성적인 인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



<그림 4> 모발의 장단에 따른 변화, PELUQUERIR, 2000, 4, p.55

에 발달하고 경쾌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림 5> 곡선에 의한 커트  
Wella trend vision, 2000

#### ㉠ 곡선을 이용한 커트

일반적으로 곡선은 우아하며 고상하고 섬세함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의 신체 곡선을 상징하기도 하며, 정감 있고 부드러우며 연약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또한 심리적, 시각적인 여성특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다.

헤어커트디자인에서는 원형의 곡선과 C자 모양의 선, A곡선(concave), U곡선(convex)으로 나눌 수 있다.

원형의 곡선이라 함은 원랭스 커트디자인 중의 이사도라 스타일의 예를 들 수 있으며, C자 모양의 선, A곡선, U곡선은 얼굴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래듀이션의 보브 단발스타일에서 형태 선으로 많이 선택되어지고 있다.

특히 C자 모양의 선과 A곡선, U곡선은 젊어 보이거나 차명 한 느낌을 준다. (그림 5)는 곡선을 이용한 보브 스타일로서 앞머리에 컬러를 더하여 줌으로써 곡선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림 6> 직선, 곡선에 의한 커트  
TOMOTOMO, 1999, 7

#### ㉡ 직선과 곡선을 이용한 커트

직선과 곡선의 혼용은 전체 형태에 변화를 주며, 여성적인 부드러움 남성적인 강인함을 상호 보완하기도 한다. (그림 6)은 직선과 곡선을 혼합하여 적용한 사례이다. 직선, 곡선, 사선을 혼합한 이 스타일은 앞머리는수평라인으로 굽은 선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옆 부분은 사선처리를 하였고 뒷 부분 즉 네이프부분은 둥근 곡선의 형태로 더욱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선적인 착시 현상으

로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얼굴 형태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 ㉔ 사선을 이용한 커트

일반적으로 사선은 방향감을 줌으로써 동적인 느낌을 가지게 한다. (그림 7)에서 나타나는 비스듬한 형태는 동적이고 길이감을 주지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생생한 변화와 더불어 젊고 개성적인 인상으로 보이게 하는 면에서 젊은층에게 권장할 수 있는 기법이다.



<그림 7> 사선에 의한 커트  
WELLA ESTETICA, p.29

헤어커트 디자인에서 사선의 역할은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줌으로 얼굴의 형태와

동적인 운동감의 이미지 변화로 인한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앞머리를 사선의 흐름으로 디자인하였을 때 동적인 운동감으로 젊어 보이고 활발해 보이는 이미지를 준다.

둥근형의 얼굴에 사선을 이용한 커트디자인을 했을 때 선적인 착시 효과로 인해 얼굴이 길게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한다.

사선을 이용한 커트디자인을 할 때는 사선의 기울기 즉, 경사도에 따라 스타일의 이미지를 변화 시킬 수 있으므로 얼굴의 형태와 두상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 디자인 해야 할 것이다.

### ③ 면

면은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근본 요소로서, 선과 선이 이어졌을 때 형성된다. 면은 면적을 의미하며 두께 유무에 따라 입체적인 면, 평면적인 면으로 나누어진다.

헤어커트에서 두상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평면적인 면과 입체적인 면의 형태를 잘 분할하여 조화시켜야 한다. 헤어커트스타일의 입체감을 부각시

키기 위하여 면과 면의 분할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르마이다. (그림 8)은 앞머리에서 1:1의 분할을, (그림 9)는 2:1의 분할을 그리고 (그림 10)은 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앞머리를 1:1 분할 하면 단정함과 지적인 이미지를 유발시킨다. 2:1 분할은 헤어스타일에서 사이드 쪽으로 파트를 나누는 경우인데, 부드러워 보이며 자연스럽게 여성스러우며 우아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그림 10)과같이 가르마 없이 모발의 결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두는 경우 얼굴 형태를 감싸줌으로써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한다.



<그림 8> 분할의 원리 I  
Zone And Section, p098  
1 : 1



<그림 9> 분할의 원리 II  
TOMOTOMO, 1999, 7,p.13  
2 : 1



<그림 10> 분할의 원리III  
TOMOTOMO, 1999, 7, p32

#### 나) 색채

색과 색채는 영어로 color 또는 colour로 같이 표기되지만 우리말에서는 그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다<sup>30)31)</sup>. 즉 빛으로서의 색은 정신적인 노력 없이도 우리를 경험의 세계로 이끌어주고, 지각되는 색채는 우리의 주관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sup>32)</sup>.

현대 색채학은 먼셀, 오스트발트에 의한 색 체계 발표 이후 활발하게 진행

30) 동아대백과사전. 16권, 동아출판사, 2000, pp.413 ~416

31) 瀧本孝雄. 藤澤英昭, 入門色彩心理學. 東京: 大日本圖書, 1996, pp.

32) Powell, F. W.(1984). *Color: And How to Use It*. CA: Walster Foster Pub, pp.2~3

되어왔으며, 인간생활과 관련된 전 영역에 걸쳐서 더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색채연구는 하나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심리·물리 혹은 물리·심리라고 하는 이른바 인접영역의 연구로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색채연구는 전반적인 색채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적합한 영역으로 접근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헤어커트 디자인에서는 질감처리 테크닉을 이용하여 색의 명도단계와 같이 모발의 량으로 색감을 조절하며, 전체적으로는 어둡게 혹은 밝게 함으로써 그 연출효과를 조절시키기도 한다. 즉 커트라인을 무겁게 남겨 놓는 상태를 어둡다고 표현하는데 헤어디자인 측면에서는 한색, 모발을 가볍게 커팅하여 밝게 표현하는 것을 난색이라 할 수 있다. 가볍다는 것은 커트기법을 이용하여 모발의 사이사이에 공기감을 부여하여 얼굴의 형태와 이미지를 가볍고 부드럽게 혹은 율동감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염색의 색은 얼굴의 빛깔과 나이, 헤어커트디자인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되며 특히 명도와 채도는 개개인의 직업, 취향, 커트디자인 등과 같이 전체적인 스타일의 이미지를 감안해야 한다.

색은 데생에 있어서 마무리 작업이며 완성에 도달하는 작업이다. 헤어커트 디자인에서도 색의 성질을 이용하여 더욱 아름답게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게 하는 이미지 변화 효과가 있다.

헤어스타일에서 색을 이용한 디자인은 얼굴의 개성파악, 모발의 상태, 색조나 하이라이트를 어떤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이미지 변화 효과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

모발 끝이 가벼운 내추럴한 스타일을 연출할 때는 주로 명도가 높은 색의 파스텔 컬러나 중간 명도의 색을 사용하는데 이는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를 더욱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할 뿐 아니라, 표정이 살아있는 이미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무겁고 강한 선의 커트스타일을 표현할 때는

채도가 높고 명도가 낮은 톤의 색이 선의 흐름을 강조할 수 있다.

유사색 대비, 보색 대비, 면적 대비 등의 배색을 이용함으로써 선의 흐름과 면적의 구분할 수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컬러를 사용하여 그린지 룩 스타일 (grunge look style) <그림 11>, 레트로 스타일(retro style) <그림 12>, 크로스 오버 룩 스타일(cross over look style) <그림 13>, 슬랜더 스타일(slender style)<sup>33)</sup> <그림14>등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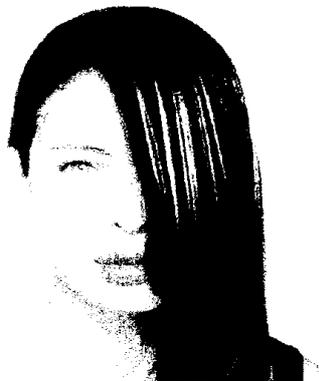
<그림 11> 그린지룩



<그림 12> 레트로



<그림 13> 크로스오버룩



<그림 14> 슬랜더 스타일

#### 다) 질감

질감이란 형태, 색채와 함께 디자인의 필수요소로서 재료나 기법에 의하여 나타나는 물체 표면의 특징으로서 촉각으로부터 시각적 촉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느낌을 말한다<sup>34)</sup>.

33) 곽형심외 5인, 앞의 책, pp.162~165.

헤어디자인의 질감도 디자인의 요소와 마찬가지로 시각적 느낌, 손으로 느껴지는 모든 감각을 의미한다.

모발의 질감은 모발이 갖는 기본적 성질과 물리적으로 변화된 성질로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기본적 성질- 반곱슬의 모발, 강모, 연모, 가는 모발 등이다.

2. 물리적 성질- 인위적으로 웨이브의 형태를 연출시킨 상태의 모발이나 염색, 펴머, 과도한 빗질로 인해 모발이 손상된 상태의 모발에 의하여 나타나는 특징이다. 커트디자인에서는 스타일에 따른 무게감을 의미할 수도 있다. 모발의 전체적 표면은 촉각, 시각적 효과에 의해 거칠게 또는 부드럽게 보여질 수 있으므로 질감 처리 테크닉을 이용하여 얼굴의 형태선을 부드럽거나 강하게 연출할 수 있다.



<그림 15> 질감표현 I  
ZoneAnd Section, p.028



<그림 16> 질감표현 II  
ZoneAnd Section, p.028



<그림 17> 질감표현 III  
ZoneAnd Section, p.028

헤어커트디자인에서 질감 표현은 소묘에서 명암 단계를 표현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5)와 (그림 16)(그림 17)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그림 15)는 명도가 낮게 표현된 예인데, 이는 질감을 표현함에 있어서 머리 끝 부분만 연결시켜 어두워 보이는 강한 선의 형태를 구성하게 한 것이다. (그림 16)은 명도의 중간 톤을 활용하여 이를 형태로 연결시킨 것이다. (그림 17)은 명도를 높게 처리한 것으로 이는 질감처리를 할 때 깊이감이 있는 모량 조절로 끝부분을 가볍고 밝게하는 표현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34) 권상구, 앞의 책, p105.

본 논문의 작품제작에서 활용한 헤어커트의 질감처리 기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모발의 양을 감소시키는 방법, 볼륨감을 형성시키는 방법, 질감의 느낌이 둔탁해 보이는 부분을 매끄럽게 할 때의 방법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발량을 감소하는 방법

(그림 18)은 슬라이싱 기법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일정량의 모발을 가늘게 커팅하기 위하여 가위를 모발 면에 미끌어지듯이 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기법을 응용하여 C자 모양으로 커팅하는 것을 C-커브츄어라고 하며, 이는 얼굴이 크고 살이 많으며, 각이 진 얼굴형태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머리끝부분의 연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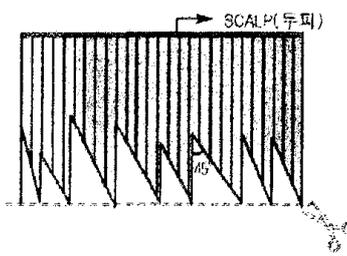
(그림 19)는 가위의 각도를 45° 이상으로 유지하여 톱니바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주로 머리 끝 부분에 질감을 나타내기 위한 기법으로 포인트 커팅이라고 한다. 모든 얼굴형에 어울린다.

셋째, 볼륨감을 형성시키는 방법

(그림 20)은 머리카락을 비틀거나 꼬아서 커트하는 테크닉으로서 트위스트라고 하며, (그림 21)은 가위로 모발길기와 양을 동시에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스트록 커팅기법이라고 한다. 이 두가지 기법은 골격이 함몰된 두상의 볼륨감을 살리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되는 기법이다. 함몰 두상의 결점을 보완하는 테크닉은 이 두 가지 외에도 브릭 커팅이 있는데, 브릭 커팅이란 가위를 90° 각도로 유지하여 마치 그것이 벽돌쌓기에서와 같은 간격을 주어 커팅하는 것으로 이는 모근을 세워줌으로써 나타나는 볼륨감과 가벼움을 유도할 수 있는 테크닉이다.



<그림 18> 슬라이싱



<그림 19> 포인트 커팅



<그림 20> 트위스트



<그림 21> 스트록

디자인 요소를 이용한 헤어커트디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커트디자인에서 고려되어야 할 형태란, 개인의 두상과 얼굴형 그리고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이목구비와 목의 생김새를 의미한다. 특히 목은 얼굴을 받쳐주는 지주일 뿐 아니라 그 길이나 굵기에 따라 헤어스타일의 효과 또한 다르게 나타나므로 헤어디자인에서 얼굴형태와 같이 중시되어진다.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하여 디자인 요소와 원리는 커트 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정이다. 회화작업이나 디자인 과정에서 스케치나 도안 또는 조각작업에서 사전에 토대를 만드는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헤어컬러 또한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유미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트렌드나 개성 표현을 강조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대 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유행현상은 모발 염색을 기본으로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전반적 유행흐름을 감안해볼 때, 컬러링은 커트 디자인의 연출력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물감을 캔트지나 사물에 색칠 하는 원리와 같다. 스케치가 된 도안이나 사물의 소재를 모발이라는 소재로 대체시킨 것이다.

셋째, 질감이란 전체 스타일을 통하여 표현되어지는 모발의 결이나 양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과 눈으로 보여지는 시각적 느낌을 말하는데 모발의 자연적인 재질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과 인위적인 방법 즉, 화학적인 요인을 사용하여 웨이브를 형성시켜 모발 재질을 바꾸어 시각적, 촉각적인 느낌을 다르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헤어커트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질감은 가위나 클리퍼, 레이저와 같은 커트

기구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지는데 이 때 두상의 흐름이나 디자인을 고려한 섹션방법, 그리고 선택한 도구의 사용 테크닉 등은 전체적인 질감의 표현효과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발에서의 질감은 옷감이나 건축물 등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헤어컷디자인의 완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소가 된다 하겠다.

따라서 헤어컷디자인을 결정짓는 동기부여로서의 디자인요소와 원리의 중요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 2. 헤어커트와 디자인 원리

### 1) 디자인 원리의 이해

디자인 원리란 어떤 실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야 할 각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구조적 계획이다. 즉 디자인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하나의 연관 법칙 또는 구성계획이라 할 수 있다<sup>35)</sup>.

구성계획의 형식미를 결정하는 것을 미의 원리 또는 형식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형태·색채·질감·양감·크기 등의 서로 다른 요소들이 평면상에 표현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미의 규칙이다. 이 형식원리의 개념은 미학의 문제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것이 제시되어 왔으며 그 내용은 크게 통일, 변화, 균형, 율동, 강조, 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6)</sup>.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헤어디자인이 다른 조형디자인과 다른점은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조형활동이라는 것이다. 즉 디자인 요소 중 소재가 되는 모발은 이미 신체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전체 헤어스타일 창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얼굴의 형태와 이목구비 그리고 목선 또한 개인의 고유한 신체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어스타일 창출에서 고려되어야 할 디자인 원리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얼굴형이 지나치게 크고 각진 턱과 곱슬거리는 모질을 가진 사람을 위한 디자인 계획과정에서 통일, 변화, 균형, 율동, 강조 등과 같은 디자인 원리 중 어떤 부분을 부각시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헤어디자인이 타 조형분야에 비하여 어렵다는 것은 신체조건의 단점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개인의 고유미와 개성미 그리고 유행미까지 표현해야 하기

35) 민경우, 앞의 책, p105

36) 권상구, 앞의 책, p119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 원리인 조화, 균형, 율동, 비례 등의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개인의 개성적인 이미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인 커트스타일을 만들어 낼 때 비로소 헤어 디자이너로서의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다.

조화, 균형, 강조, 율동, 강조, 착시 등과 같은 디자인원리를 헤어커트와 접목시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조화의 원리

조화란 전체적인 하모니(harmony)로 두 개 이상의 요소 또는 부분의 상호관계에 대한 내적 가치 판단으로서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 배척하지 않고 통일된 전체로서 높은 감각적 효과를 발휘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부분과 부분 또는 부분과 전체 사이에 안정된 관련성을 주면서도 공감을 일으킬 때 조화로운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sup>37)</sup>. 또한 조화는 유사 조화(harmony of analogous)와 대비 조화(harmony of contrast)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유사조화란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같거나 아주 비슷할 때 그 공통된 성격으로부터 일어난다. 개개의 형태나 부분이 공통성이 있고 서로 안정된 관계에 놓여 질 때 이들은 통일이 된다<sup>38)</sup>.

유사조화와 대비조화의 원리를 헤어커트디자인에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림 22)는 단정한 원 랭스 라인과 모발의 질감과 양감간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조화의 원리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대비조화는 둘 이상의 요소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띠 때 일어난다<sup>39)</sup>. (그림 23)의 예와 같이 모발길이의 장단, 명암, 강약과 정반대의 분량 등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조화의 원리에는 통일과 변화라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통일이란 전체에

37) 데이비드 라우어, 『조형의 원리』, 미진사, 1992, p.8

38) 유송옥, 앞의 책, p.281

39) 유송옥, 앞의 책, pp.281

서 하나의 구심적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화는 원심적으로 움직이는



〈그림 22〉 유사조화(통일)  
미용회보, 2000, 8



〈그림 23〉 대비조화(변화)  
커트 論·學, 지상기  
1999, p229

것이다. 통일과 변화는 상반되는 성격을 띄지만 상호 긴밀하게 조화 되지 않으면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헤어커트스타일에서의 통일감은 주제에 의한 통일, 선의 방향에 의한 통일, 색상, 명도, 채도 등에 의한 통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일의 원리가 강조되

면 단정해 보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끄는 효과는 줄어든다.

변화는 서로 다른 성질의 것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악센트(accent)라고도 하는데, 통일에서 느끼는 단조로움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나이보다 젊고 활동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한다.

## (2)균형의 원리

균형(均衡)이란 전, 후, 상, 하, 좌, 우로부터 동등한 평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형태와 색을 조합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안정감을 주는 효과를 갖는다<sup>40)</sup>.

균형은 질서와 안정, 통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로서 대칭과 비대칭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대칭의 원리는 수평이나 수직 축에 의한 좌우 대칭을 의미하며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헤어커트디자인에서 대칭의 원리는 얼굴을 이마 중심에서 턱 중심까지 수직으로 이등분하였을 때 나타나는 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반하여 비대

40) 유송옥, 앞의 책, p276

칭의 원리는 선, 색 등에서 좌우 어느 한 쪽에 그 무게를 둠으로써 전체스타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디자인에서 균형의 문제는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데, 헤어커트디자인에서의 균형은 모발의 길이, 모발의 양, 두상의 외향곡선의 형태를 대칭이나 비대칭의 스타일로 디자인할 때 나타난다.

(그림 24)는 대칭균형으로서 정적, 엄격함, 고전적, 그리고 단정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평범하게 보일 수 있다.

(그림 25)는 비대칭의 예로서, 불균형을 나타낸다. 불균형은 불완전한 그대로의 대담한 미완성을 포인트로 함으로써 경쾌하고 생기있는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24> 대칭  
ESTETICA, WELLA, p.24



<그림 25> 비대칭  
WELLA, 2002, p.36



<그림 26> 울동  
TOMOTOMO, 1999, 7, p24



<그림 27> 점증  
MEN' S HAIR , p51

### (3) 율동(rhythm)의 원리

율동은 물체가 연속적인 동작을 취하는 형태의 흐름을 내포하고 있다.

헤어컷디자인에서의 리듬은 머릿결 움직임 상태가 규칙적이고, 강약에 의한 동적인 연속감을 리드미컬하게 표현할 때 나타난다.

어떠한 형태의 디자인이라도 리듬감을 살려주면 아름다움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26)은 반복되는 액센트, 즉 순환하는 강약에 의해 그 패턴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량과 모발의 길이를 조절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그림 26)에서 잘 나타난다.

율동의 원리는 점증과 강조의 원리로 나눌 수 있다. 점증은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정한 질서를 가진 배열로 일련의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라데이션의 조형적 효과는 원근감과 입체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7)은 점증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얼굴의 형태와 두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서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율동에서의 점증법은 남성컷디자인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이드와 네이프(nape) 부분을 처리 할 때 생기는 굴곡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에 좋은 기법이다. 즉 목과 얼굴의 연결부분과의 형태적 차이를 명암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모발 흐름과 두상 실루엣을 나타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헤어컷디자인에 있어서 점증법은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 (4) 강조의 원리

강조(emphasis, accent)란 어떤 주변조건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강하게 하여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방법은 그 부분만 검거나 희게 또는 강한 색을 넣어 주목성과 명시도를 높임으로써 지루함을 덜어주는 효과를 낸다<sup>41)</sup>.

41) 데이비드 라우어, 앞의 책, p28

(그림 28)은 질감과 색상에 의한 강조이며, (그림 29)는 색상의 대조에 의한 강조이다. 즉 한쪽에 무게감을 줌으로써 스타일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웨이브의 흐름 또는 라인과 라인 변화가 대비되게 함으로써 강조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림 28>강조, 1966  
Vidal Sassoon, Asymmetric cut



<그림 29>대조, WELLA, 2000

#### (5) 착시의 원리

##### ① 길이에 의한 착시

같은 길이의 수직선이라도 선 끝의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향한 것이 안쪽으로 향한 것보다 길이가 길어 보인다.

헤어커트디자인에서 모발은 길이의 변화에 따라 짧음, 중간, 그리고 긴 형 등과 같은 세 가지 스타일로 구분되며 이 길이에 따라 전체 스타일이 이루어진다.

(그림 30)은 길이의 단차를 이용하여 스타일을 연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법은 긴 얼굴을 짧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림 30> 길이에 의한 착시, PELUQUERIA, 2001, 4, p.55

##### ② 선의 방향과 간격에 의한 착시

(그림 31)은 울동감 있는 수직을 강조함으로써 짧은 머리에 길이감을 더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수직이나 수평선이 넓은 면

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면 오히려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기본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즉 불규칙적인 컬러배열을 시도함으로써 수직적인 시각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그림 32)는 이마에서 강조되고 있는 수평선이 줄 수 있는 단절된 느낌을 정수리의 불규칙적인 수직처리로 보완함으로써 개성감을 살림과 동시에 길이감을 강조한 예이다.

(그림 33)은 사선에 의한 착시를 나타낸 예로서, 이는 사선의 기울기와 모발 끝의 밖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긴 얼굴형을 짧게 보이도록 하였다.

사선의 각도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른데 각도가 수직에 가까워지면 길이가 강조되고, 수평에 가까워지면 폭을 의식하게 되므로<sup>42)</sup>, 헤어 커트에서 수직을 이용한 강조는 둥근 얼굴형, 그리고 수평 강조는 긴 얼굴형에게 적합하다.



〈그림 31〉 수직선에 의한 착시, WELLA, 2000



〈그림 32〉 수평에 의한 착시, PELUQUERLAS 2001, 4, p.60



〈그림 33〉 사선에 의한 착시, PELUQUERLAS, 2002, 9, p.6

42) 뷰티투데이, 2000, 8

### 3. 헤어 커트 디자인의 구분

#### 1) 기본 커트 스타일

헤어커트디자인의 기본 스타일에는 원랭스(One length) 커트, 그라듀에이션(Graduation) 커트, 레이어(Layer) 커트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원랭스 커트

원랭스 커트에는 수평라인, 둥근 라인, 사선 라인의 세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원랭스란 수평라인(Straight) 지칭하는 것이며(그림 34), 둥근 라인은 이사도라(Isadora) 스타일이라고 한다(그림 35). 한편 사선으로 이루어진 원랭스 스타일은 스파니엘(Spaniel)이라고 한다(그림 36).

수평선의 원랭스 커트는 얼굴형태를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반하여, 둥근 라인의 원랭스와 이사도라는 얼굴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이끌며, 사선라인의 스파니엘은 울동감을 줌으로써 개성미를 연출할 수 있게 한다.



<그림 34> 원랭스  
지상기, 커트 論·學, p.229



<그림 35> 이사도라  
PELUQUERIAS, p.26, 2001



<그림36>스파니엘(A라인),  
ESTETICA, WELLA

##### (2) 그라듀에이션커트

그라듀에이션이란 두피에 대해 45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커트하는 것을 말한다. 그라듀에이션에서 머리길이의 가이드 라인과 두상에서 내려오는 두 점이

만나는 이 점을 각도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을 웨이트 라인이라고 한다.

그래듀에이션은 웨이트 라인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낮은 그래듀에이션, 중간 그래듀에이션, 높은 그래듀에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커트 각도를  $0^{\circ}$  에서  $90^{\circ}$  이하의 각도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방법이다.

그래듀에이션에서 커트시술 각도와 섹션의 방향은 스타일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데, 이때 섹션의 방향은 수평, 사선, 곡선으로 구분된다. 수평방향은 일자 라인의 형태이며 수직방향과 곡선 방향은 경사도에 따라 달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사선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림 37)은 두상의 측면과 가이드 라인이 비스듬하게 만나면서 마름모꼴 형태를 이루고 있는 낮은 그래듀에이션으로서, 얼굴의 형태가 퍼져 보이므로 얼굴이 작고 마른 사람에게 어울린다. (그림 38)은 중간 그래듀에이션으로서 얼굴이 작은 사람에게 어울린다. (그림 39)는 높은 그래듀에이션으로서 얼굴형에 관계없이 개성적이며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때 효과적이다.

### (3)레이어 커트

레이어란 모발이 층을 이루게 하는 커트 기법이다. 두피에 대해  $90^{\circ}$  에서  $180^{\circ}$  까지의 각도를 이용하여 시술하는데, 이 각도에 따라 스타일이 결정된다. 레이어는 머리의 중량감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

레이어는 기본 레이어(그림 40), 그래듀에이션 레이어(그림 41), 아웃레이어(그림 42)가 있는데, 기본 레이어는 목선을 가늘어 보이게 하므로 도회적인 세련미를 주고 있다. (그림 41)은 머리 윗 부분이 볼륨감이 없으므로 얼굴이 길고 각진 형에 어울린다. (그림 42)는 얼굴이 작은 스타일에 어울리며 긴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법이다.



<그림37> 낮은그래듀에이션  
PELUQUERIAS,2000,11, p.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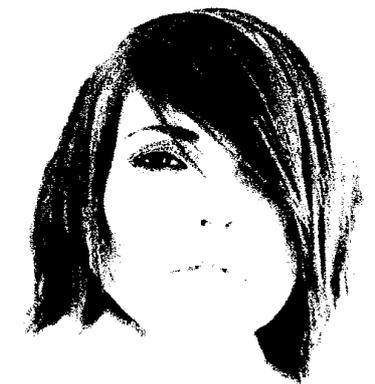
<그림 38> 중간 그래듀에이  
션, PELUQUERIAS, 99, 12,  
p.74



<그림39> 높은그래듀에이션  
TOMOTOMO, !999, 7, P.24



<그림 40> 기본 레이어  
Estetica, Wella, p.18



<그림 41> 그래듀에이션 레  
이어, Estetica, Wella, p.23



<그림 42> 아웃레이어,  
Wella, 2002

## 2) 복합형 커트 스타일

### (1) 라인과 라인의 결합

선과 선을 어떻게 결합시켰느냐에 따라 새로운 형태가 연출될 수 있다. (그림 43)은 사선과 사선을 만나게 함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지만 율동감을 동시에 느끼게 함으로써 지루함을 덜 수 있다. (그림 44)는 사선과 등근 라인을 결합시킨 것으로서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며,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림 45)는 사선과 일자라인을 결합시킴으로 단조로움은 탈피하고 딱딱하고 강한 이미지를 다소 완화시킨다.

그러므로 한가지 라인의 커트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두가지 이상의 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얼굴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 (2) 형태와 형태의 결합

형태와 형태의 결합이란 스타일과 스타일의 결합을 의미한다. 즉, 그라듀에이션과 레이어의 결합 또는 원 랭스와 그라듀에이션의 결합, 원 랭스와 레이어의 결합 등 디자이너의 감각과 기술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

(그림 46),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트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림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라듀에이션과 레이어의 복합형은 네추럴한 느낌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다가오며, 얼굴 형태를 보완할 수 있다.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랭스와 그라듀에이션의 복합형은 단조로운 느낌의 원랭스 형태를 디스커넥션 기법을 이용하여 네이프 부분보다 탑부분을 길게 처리하여 모발 끝에 날카로움을 강조하여 야성미의 이미지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43> 사선과 사선  
PELUQUERIAS, 2002,p.44



<그림 44> 사선과 등근라인  
WELLA ,2002, p.18



<그림 45> 사선과일자라인  
by ESTETICA, p.29



<그림46>그레듀에이션과 레이  
어 PELUQUERIAS, 2001, 9,  
p.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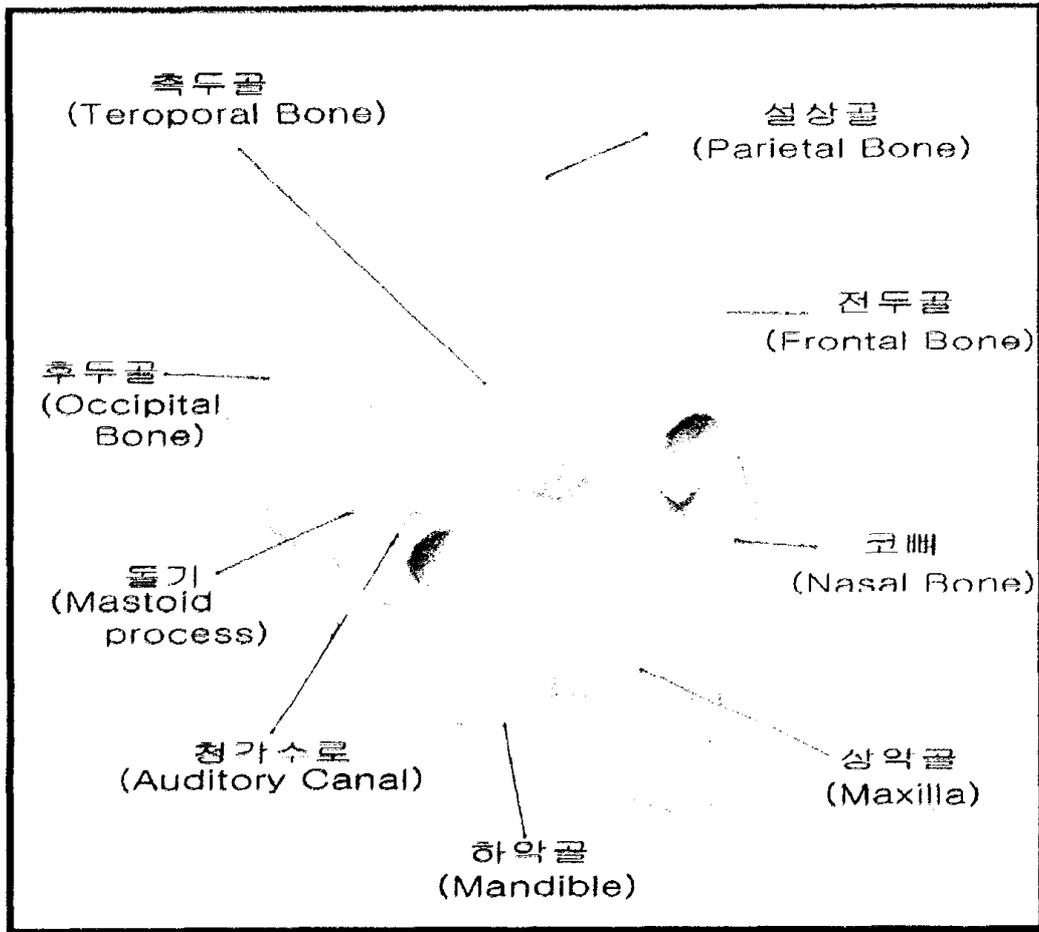


<그림 47> 원랭스와 그레듀에이션,  
PELUQUERIAS, 2001, 7, p.66

#### 4. 헤어 디자인을 위한 얼굴 형태별 분류

##### 1) 두상의 골격 구조

두상의 골격구조는 골상학적으로 볼 때 두개골과 안면골로 구분되며 두개골은 전두부,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로, 안면골은 광대뼈, 코뼈, 위턱뼈, 아래턱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8> 두상 골격구조

(그림 48)은 두상의 구조와 각 명칭을 나타낸 것이다. 사람의 두상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두개골은 남성보다 작고 위 후두부 돌출부분과 곡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부분 남성과 여성의 골격 차이를 알 수 있지만 두개골에서도 여성, 남성의 특징<sup>43)</sup>을 잘 살펴 헤어커트 디자인

43) VIDAL SASOON, 『CUTTING HAIR THE VIDAL SASOON WAY』, Butterwort

을 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각 부분과 부분이 합해져 전체적인 형태를 이룸으로써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두상의 형태가 입체적이거나 평면적인 형태를 지닌 사람, 울퉁불퉁해 보이는 형태 등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를 지닌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돌발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먼저 시각적, 촉각적인 감각을 통해 확인을 함으로써 헤어컷 디자인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얼굴 형태 분류에 따른 헤어 커트 디자인

1930년 미국 할리우드의 웨스트모어(Westmore家)<sup>44)</sup>형제들은 7가지 얼굴형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골상학을 연구하면서 사람의 얼굴이 일반적으로 7가지 형태 중의 하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즉, 계란형, 장방형, 정방형, 둥근형, 삼각형, 역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등이 있다.

테루코 고바야시(Teruko Kobayashi)도 사람의 얼굴을 7가지 형태로 동일하게 구분하고 있으며<sup>45)</sup> 와이나 밀러(Wynna Miller)도 『The ARTISTRY OF MAKE-UP』에서 얼굴의 형태(shape)를 계란형, 둥근형, 긴얼굴, 사각얼굴, 다이아몬드 얼굴, 하트(heart)형태의 얼굴, 역삼각형 얼굴, 삼각형등 모두 8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은 모두가 한 사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체기관이다<sup>46)</sup>. 또한 모든 사람의 얼굴은 다양하다. 이 다양성이야말로 고등한 생물이 갖추고 있는 기본 요건이다<sup>47)</su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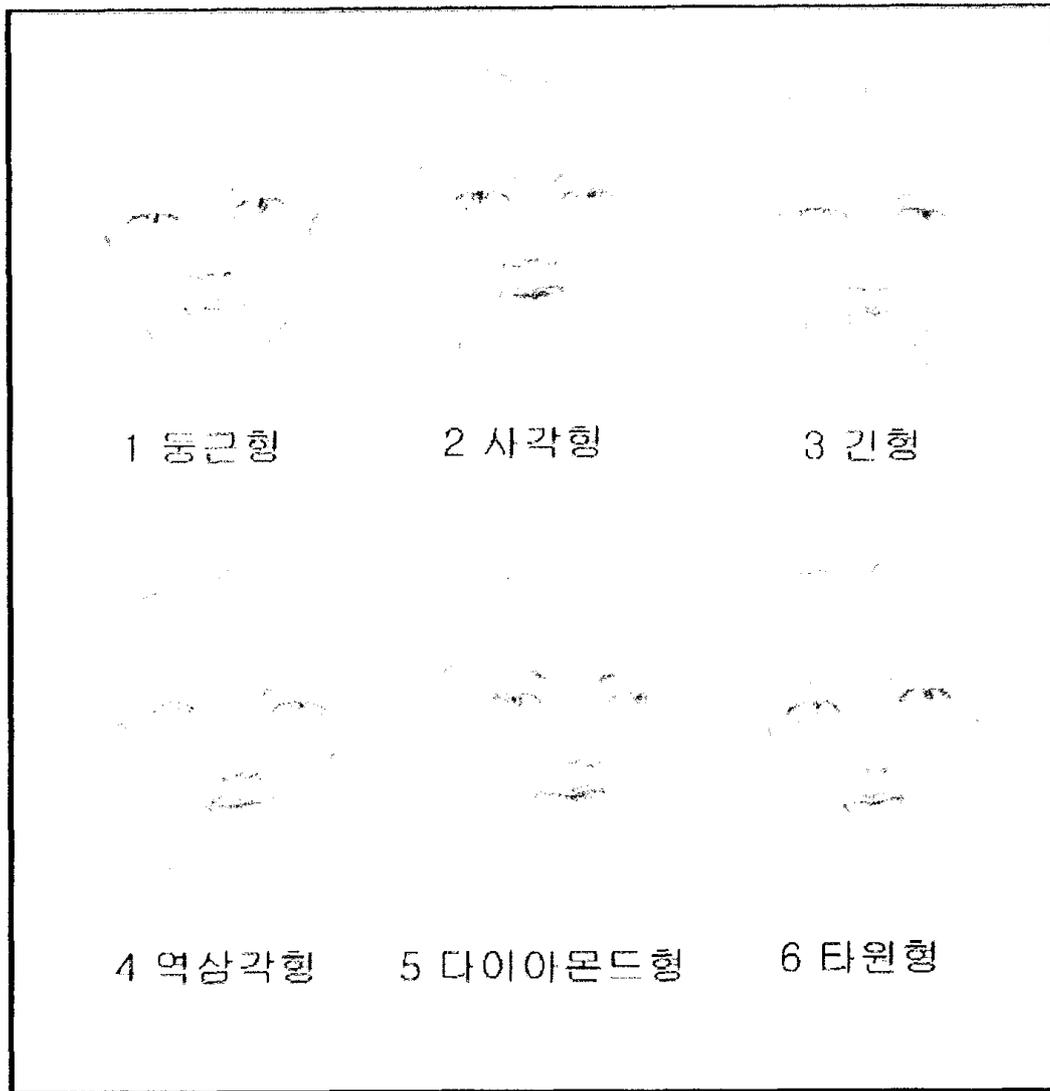
h - HeiNEmann, A division of Reed Educational and Profesional Publihing Ltd.

44) Westmore家: 최초의 미국 할리우드의 스튜디오에 메이크업 부서를 설립했고 얼굴 형에 대한 이론을 1930년에 만들었다.

45) Teruko Kobayashi, 『the Best Make - up』, TOKYO, Kodansha Ltd, 1985, Pp.102~109

46) 막스 피카르, 조두환 옮김, 『사람의 얼굴』, Das Menshengesicht, 도서 출판 책세상, 1994, p276

47)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낮』, 사계절 출판사, 2000, p18



<그림 49> 한국인의 얼굴 형태 분류

본 연구에서는 이화순<sup>48)</sup>, 도주연<sup>49)</sup>등의 메이크업 관련 선행 논문의 결과와 참고문헌<sup>50)</sup>을 토대로 이들 얼굴형 중에서 한국인의 얼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48) 이화순, “한국여성의 Make-UP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49) 도주연,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변화분석,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50) 이연희, 이운영, 『내가 얼큰이라구요?』, 예학사, 2002, pp.22~43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6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작품제작에 이용하였으며, 이를 (그림 49)로 표현하였다.

제시된 각 얼굴형의 특징과 이에 따른 헤어 커트 디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1) 둥근형(round)의 얼굴: 얼굴이 넓고 이마가 좁은 얼굴형태를 하고 있으며 밝고 명랑하며 귀엽고 건강한 인상과 함께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보여진다.

헤어커트디자인을 할 때는 타원형의 얼굴에 근접하도록 디자인 해야 하며, 이 때 전체적인 스타일은 클래식하고 모던한 것이 좋다. 앞머리의 라인은 사선을 이용한 착시 효과를 적용하여 탑을 기점으로 모발길이에 단차를 주고 질감처리를 강하게 넣어 볼륨감을 형성시키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러한 기법은 얼굴에 길이감을 더하게 한다.

(2) 네모형의 얼굴: 사각형은 턱 부위가 발달해 있으므로 남성적인 인상을 주고, 특히 여성의 경우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강인하고 의지력 있는 여성상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사각얼굴에 적용시킬 헤어스타일은 각이 드러나는 짧은 머리카락 스포츠형의 스타일을 피하는 대신, 사선을 이용하여 착시효과를 유도하고 비대칭 라인을 강조하여 각진 형태를 완화시키는 것이 좋다. 앞머리를 내리고 턱 선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끝머리를 가볍게 질감처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둥글 헤스타일인 경우, 둥근라인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적용시키고, 질감처리를 통하여 울동감을 부여하면 얼굴 형태를 부드러운 이미지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브 스타일은 턱 선을 감싸는 형태를 연출해주므로 부드러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긴 얼굴: 계란형이나 둥근형 얼굴에 비하여 길이가 길다. 일반적으로 긴형의 얼굴은 코의 길이까지 같이 긴 사람이 많다. 상대적으로 얼굴 폭이 좁게 보인다.

긴 얼굴에 적합한 커트디자인은 수평라인을 이용한 착시효과를 적용시키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다. 이 때 수평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평느낌을 굵게 해 준다면 전체스타일에서 넓이감이 더해지기도 한다. 특히 모발의 헴(hem) 라인을 둥근 U자로 만들어 주는 중간 길이형이나 단발 보브 스타일은 얼굴에 넓이감을 더하여 준다. 롱 헤어 스타일일 경우에도 선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주는 것이 얼굴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4) 역삼각형 얼굴: 역삼각형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을 향하여 뾰족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턱의 영향으로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우며 빈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좁은 턱을 선호하는 현대의 유행에는 적합한 형이다.

역삼각형을 위한 헤어스타일은 이마를 감출 수 있는 길이를 선택하고 질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컬러의 대비를 이용한 분할로 하악골을 드러내어 얼굴형을 보완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5) 다이아몬드형의 얼굴: 다이아몬드 형태의 얼굴은 이마나 턱에 비하여 광대뼈 부분이 매우 발달해 있다.

이 얼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헤어커트디자인은 가는 선이 전체의 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이마와 턱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모발의 질감을 가볍게 처리하여 부드러운 이미지 강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6) 계란형의 얼굴: 계란형 얼굴은 가장 이상적인 얼굴로 얼굴의 폭보다 길이가 약간 길고 얼굴 전체에 대한 눈, 코, 입의 균형이 적당한 얼굴형으로 일반적으로 표준형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얼굴형을 가진 한국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계란형은 어떠한 헤어커트디자인을 해도 잘 어울리므로 개인의 개성과 유행, 그리고 나이와 직업 등에 따른 연출을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두상의 골격 구조 즉, 납작하거나 튀어나온 형태 등에 따라 커트 라인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두상의 형태가 납작할 경우에는 콘 케이브의 라인을 설정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콘 벅스 라인으로 디자인을 하면 두상의 형태를 이상적인 흐름으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IV. 작품제작

### 1. 디자인 의도 및 방법

본 논문을 위한 작품 제작은 지금까지 살펴본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실제 모델에 적용시킨 것이다.

시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술 전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 이에 의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시술작업을 하였다. 시술 후 각 모델의 앞모습과 옆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작품은 모델의 얼굴형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출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연구자의 디자인 의지 즉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최대한 적용하고, 피시술자인 모델의 만족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의 유행흐름을 파악하고 작품에 반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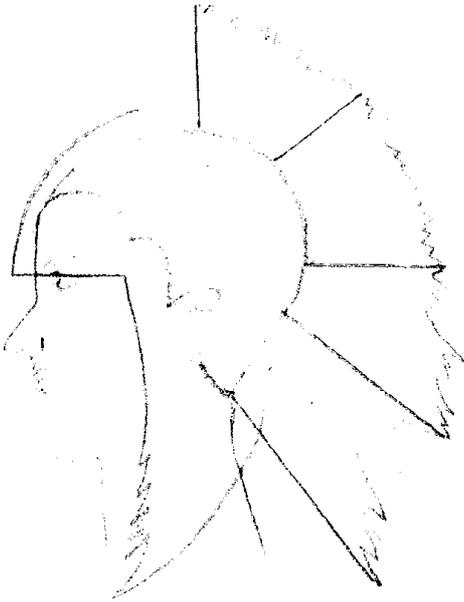
남녀 6명, 모두 12명을 통하여 행한 작품제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작품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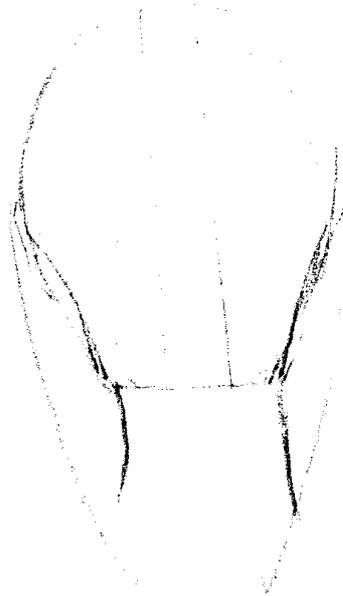
(그림 50)은 둥근형 얼굴로 선정된 여자 모델 사진이다. 얼굴이 넓어 보이고 두상의 흐름이 완만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림 51), (그림 52)와 같이 도식화를 통하여 시술방법을 설명하고, (그림 53)으로 정면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얼굴 정면에서는 눈과 코 중간 부위까지를 사선으로 연결시켜 스파니엘 형태를 이루게 하였으며, 목선과 가슴선 그리고 머리 끝단까지 층을 뒹뚱 변화를 주었다. 즉 디자인 요소에서 선의 원리를 강조하고 원리에서 변화를 강조시켰다(그림 54). 한편 옆면에서는 모발 끝 부분의 질감을 통하여 울동 효과를 주게 하였다(그림 55).



<그림 50> 작품 I 의  
시술전 사진



<그림 51> 작품 I 의 도식화 1.



<그림 52> 작품 I 의 도식화 2



<그림 53> 작품 I 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54> 작품 I의  
시술 후(정면) 사진



<그림 55> 작품 I의  
시술 후(측면) 사진

작품 II



<그림 56> 작품 II의  
시술전 사진

(그림 56)은 둥근형의 남자 모델 사진이며, (그림 57)과 (그림 58)은 도식화, 그리고 (그림 59)는 일러스트레이션이다.

남자 모델이기 때문에 옆선을 점점 어두워지게 하는 점증 기법을 적용시켜 짧은 스포츠 스타일로 연출하였다. 짧은 머리가기 때문에 옆면 전체선을 수직이 되게 하였으며, 정수리 부위는 볼륨감을 주었다(그림 60)(그림 61).



<그림 57> 작품 II의  
도식화 1



<그림 58> 작품 II  
도식화 2



<그림 59> 작품Ⅱ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60> 작품 II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61> 작품 II의  
시술후(측면) 사진

### 작품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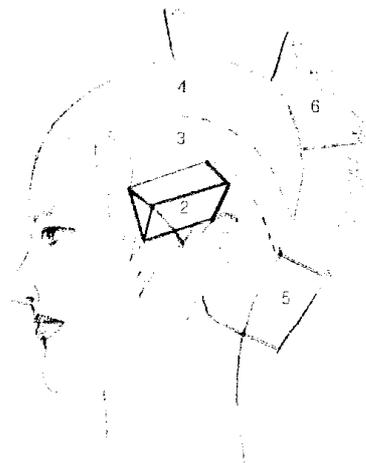
<그림 62>작품Ⅲ의  
시술전 사진

네모형 얼굴을 위한 작품 제작으로서, (그림 62)는 시술 전 여자 모델의 모습이다. 네모형 얼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각진 형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턱 선으로 가면서 부드러운 끝 선을 나타내도록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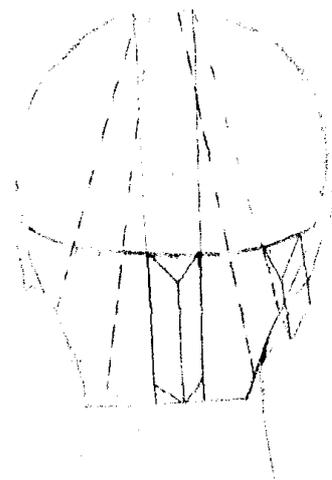
(그림 63) (그림 64)는 도식화, 그리고 (그림 65)는 네모형 여자 모델을 위하여 제작된 일러스트레이션이다.

(그림 66), (그림 67)은 시술 후의 앞면과 옆면 모습이다. 이 작품의 특징은 모가 진 부분을 둥근 라인의 실루엣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앞머리는 사선으로 동적인 느낌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요소와의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질감처리를 강조한 것이므로 모발소재를 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원리에서는 울동감을 강조시킨 것이다.



<그림 63> 작품 Ⅲ의  
도식화 1



<그림 64> 작품 Ⅲ의  
도식화 2



<그림 65> 작품 III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66>작품 Ⅲ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67>작품 Ⅲ의  
시술후(측면) 사진

## 작품 IV

(그림 68)은 네모형 얼굴의 남자 모델의 모습이며, (그림 69) (그림 70), (그림 71)은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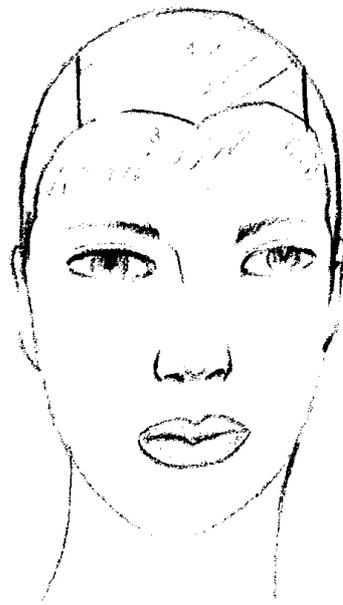
<그림 68> 작품 IV의  
시술전 사진

(그림 72)는 시술 후의 모습인데, 이 작품에서 의도한 것은 각진 턱에서 시선을 멀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수리에서 이마까지를 둥근 형태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자 한 점이다. (그림 73)은 옆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낮은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였고, 옆선 전체가 둥근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한편 이 작품에서 적용시킨 디자인 요소는 선의 흐름이며, 원리에서는 울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9> 작품 IV의 도식화 1



<그림 70> 작품 IV의 도식화 2



<그림 71> 작품 IV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72> 작품 IV의  
시술후 (정면) 사진



<그림 73> 작품 IV의  
시술후(측면) 사진

## 작품 V

(그림 74)는 긴형 얼굴의 여자 모델 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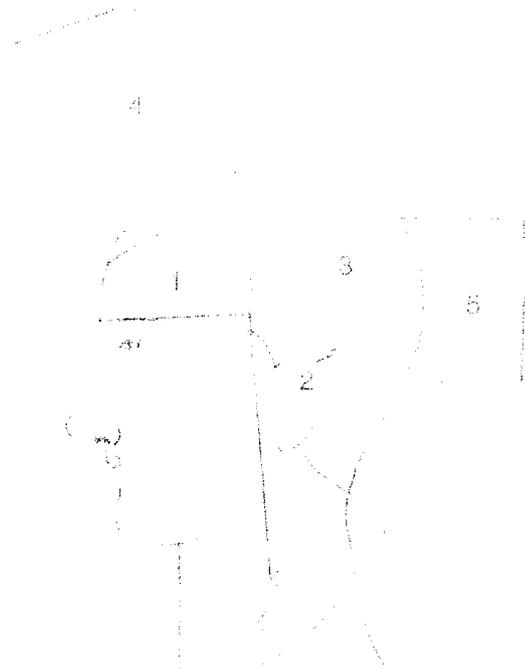
긴 얼굴형은 네모형이나 둥근형 얼굴과는 달리 넓이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그림 75)는 도식화, 그리고 (그림 76)는 일러스트레이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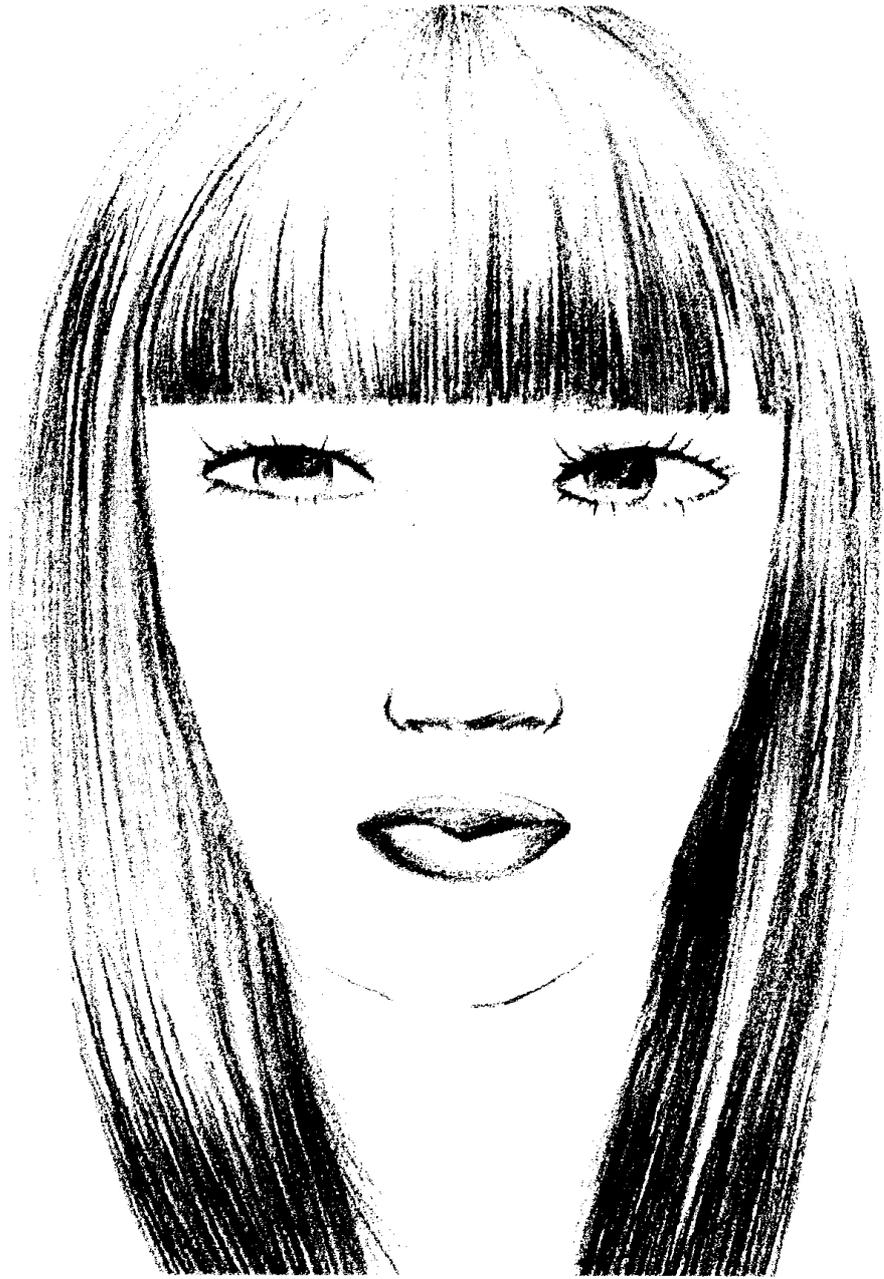
(그림 77)과 (그림 78)은 시술후의 앞면과 옆면 사진으로으로서, 이 디자인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수평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수평적인 이마 부위의 선에 다소의 변화를 주고 부드러움을 연출하기 위하여 부분 염색을 시켰다. 따라서 디자인 요소에서는 선의 원리를, 디자인 원리에서는 울동을 통한 변화를 적용시켰다.



<그림 74> 작품 V의  
시술전 사진



<그림 75> V의 도식화



<그림 76> 작품 V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77> 작품 V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78> 작품 V의  
시술후(측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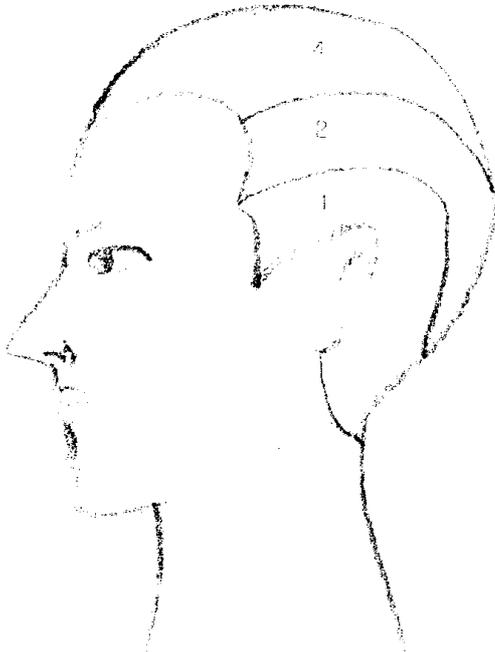
## 작품 VI



<그림 79> 작품 VI의  
시술전 사진

(그림 79)는 긴 얼굴을 가진 남자 모델의 모습이며, (그림 80) (그림 81)은 도식화, 그리고 (그림 82)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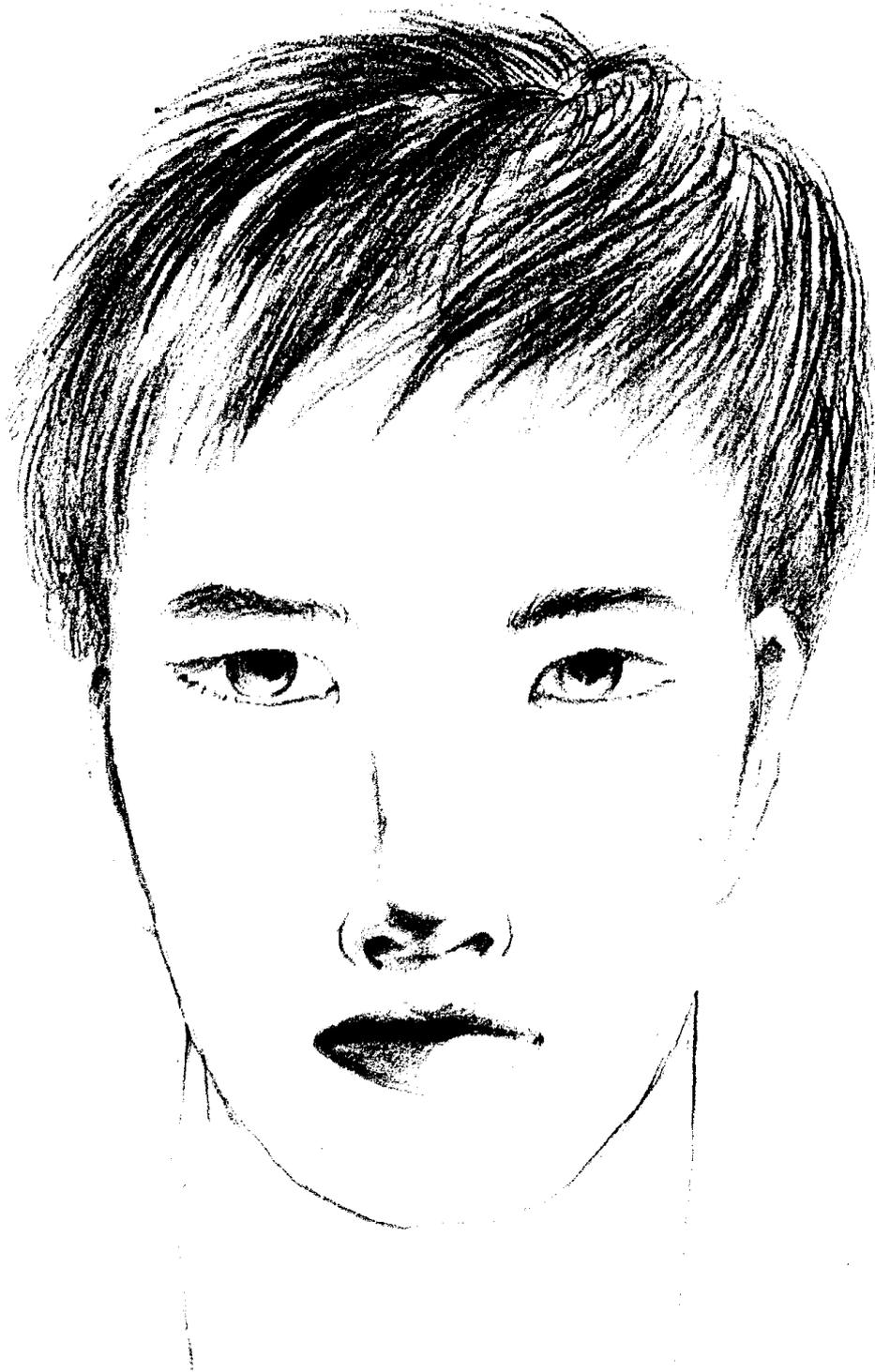
(그림 83)은 시술후의 앞면 모습, (그림 84)는 옆면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이 디자인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질감처리 시킴으로서 옆으로 볼륨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 요소에서는 소재를, 앞이마를 강조시켰으므로 강조의 원리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0> 작품 VI의 도식화 1



<그림 81> 작품 VI의 도식화 2



<그림 82> 작품 VI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83> 작품 VI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84> 작품 VI의  
시술후(측면) 사진

작품 VII



<그림 85> 작품 VII의  
시술 전 사진

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89)의 옆모습에서 보는 것과 같이 뒷부분에 볼륨감을 주면서 이러한 볼륨이 머리 끝과 연결되면서 목선에 가볍게 와 닿게 하였다. 점증효과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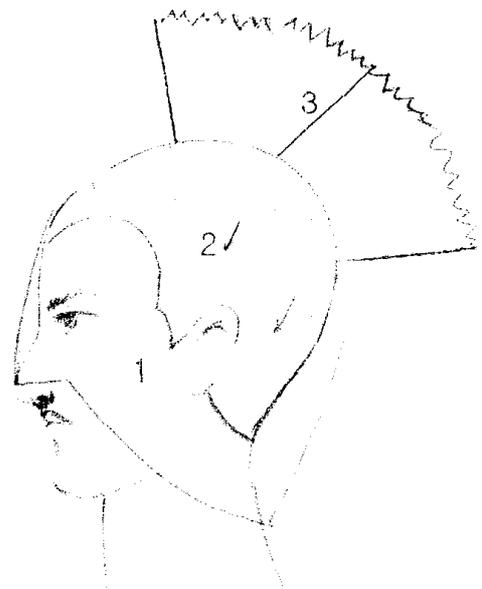
그러므로 본 작품은 디자인의 요소에서 선과 소재를 동시에 활용하였고 원리에서 착시, 비례, 율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시킨 대표적인 예이다.

(그림 85)는 역삼각형 얼굴형을 가진 여자 모델의 모습이며, (그림 86)과 (그림 87)은 각각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된 것이다.

역삼각형 얼굴의 특징은 이마부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둥근형을 이루게 하였으며, 넓은 이마의 단점을 감추기 위하여 비대칭의 가르마를 사선으로 적용시켜 착시현상을 유도했다.

(그림 88)은 앞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비대칭과 사선에 의한 착시효과로 여성적인 귀여움을



<그림 86> 작품 VII의 도식화



<그림 87> 작품 VII의 일러스트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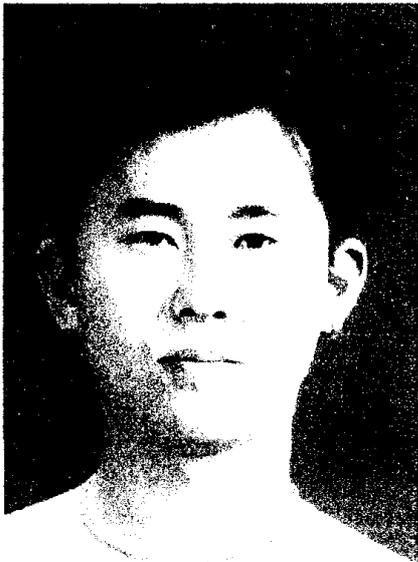


<그림 88> 작품 VII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89> 작품 VII의  
시술후(측면) 사진

작품 Ⅷ



<그림113> 작품 Ⅷ의  
시술전 사진

(그림 90)은 역삼각형의 얼굴을 가진 남자 모델 사진이며, (그림 91) (그림 92)은 도식화, 그리고 (그림 93)은 일러스트레이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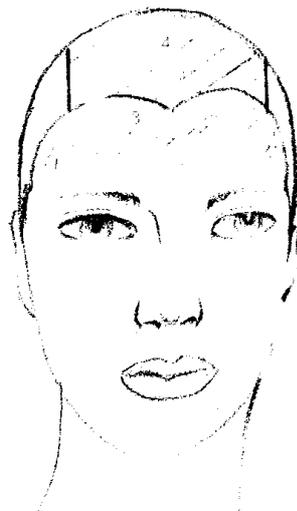
시술전의 모습이 역삼각형 얼굴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디자인이라면, (사진 94) (사진 94)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남자모델이기 때문에 여자와 같이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는데 이는 머리 길이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머리를 사선으로 처리하면서 이마를 덮어주었으며, 답답함을 덜기 위하여 한쪽 부분은 여백을 주었다. 또한 건너뛰기 방식, 즉 블리치 기법을 앞머리에 적용시킴으로써 울동감을 주었다. 앞머리에 준 블리치는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역삼각형 얼굴에서 강조해서는 안될 앞머리를 과감하게 변화시킨 것은 선과 색을 동시에 이용한 강조이기도 하다.



<그림 91> 작품 Ⅷ의  
도식화 1



<그림 92> 작품 Ⅷ의  
도식화 2



<그림 93> 작품 Ⅷ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94> 작품 VIII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95> 작품 VIII의  
시술후(측면) 사진

## 작품 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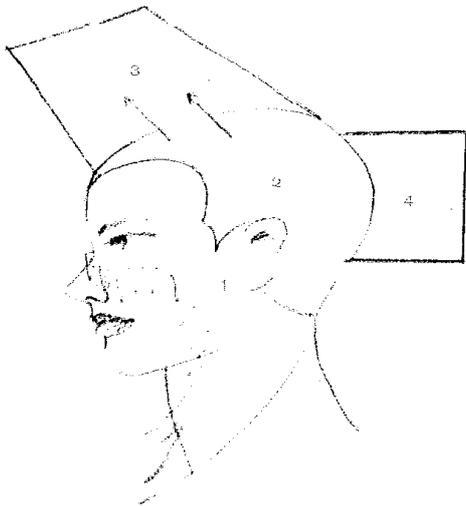


<그림 96> 작품 IX의  
시술전 사진

(그림 96)은 다이아몬드형 얼굴을 가진 여자 모델의 사진이며, (그림 97)과 (그림 98) 그리고 (그림 99)는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광대뼈 부위가 지나치게 발달한 얼굴형으로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보완시키는 것이 디자인 포인트가 된다.

(그림 100)과 (그림 101)은 시술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디자인 요소에서 선과 색 그리고 소재를 같이 적용시킨 예이다. 즉, 긴 머리 형태를 유지하지만 입술라인에서부터 머리 끝선까지 층을 내어 시선을 광대뼈에서 멀리 두게 하고 있으며, 염색 또한 정수리 부분은 남겨두고 이마부위에서 시작함으로써 변화와 율동감을 주고 있다. 또한 머리 끝 부분의 질감처리를 통하여 율동적인 느낌을 더하게 하였다.



<그림 97> 작품 IX의  
도식화 1



<그림 98> 작품 IX의  
도식화 2



<그림 99> 작품 IX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100> 작품 IX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101> 작품 IX의  
시술후(측면) 사진

작품 X



<그림 102> 작품 X의  
시술전 사진

(그림 102)는 다이아몬드형의 남자모델 사진이며, (그림 103) (그림 104) (그림 105)는 각각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이다.

다른 얼굴형의 남자모델에 비하여 비교적 긴 머리형을 고수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잘 살리면서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림 106) (그림 107)의 시술 후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체 머리모양을 가볍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슬라이싱 기법에 의한 질감처리의 한 방법이다. 또한 부분 염색을

함에 있어서 앞머리를 중심으로 하여 끝 부분에 강한 탈색을 시킴으로써 경량감을 주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요소에서의 소재와 선, 그리고 원리에서의 변화에 의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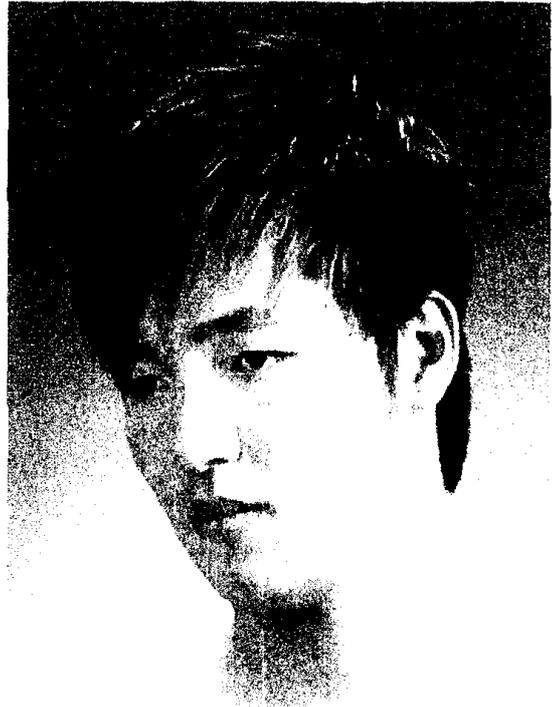
<그림 103> 작품 X의  
도식화 1



<그림 104> 작품 X의  
도식화 2



<그림 106> 작품 X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107> 작품 X의  
시술후(측면) 사진



<그림 105> 작품 X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 X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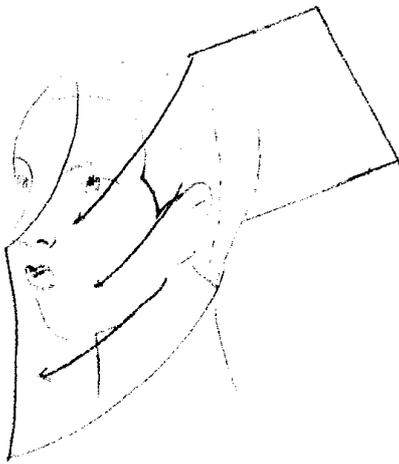
<그림 108> 작품 XI의  
시술전 사진

(그림 108)는 계란형 얼굴의 여자 모델 모습이다. (그림 109) (그림 110) (그림 111)은 도식화를 그리고 (그림 112)는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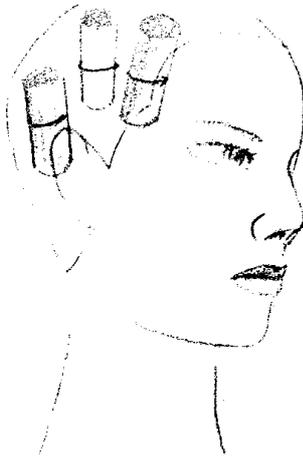
이 얼굴형은 어떤 디자인을 적용시켜도 어울리므로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는 긴 머리에 약간의 층만 지게 한 후, 변화를 위하여 세팅을 시켰다.

시술후의 모습은 (그림 113)과 (그림 114)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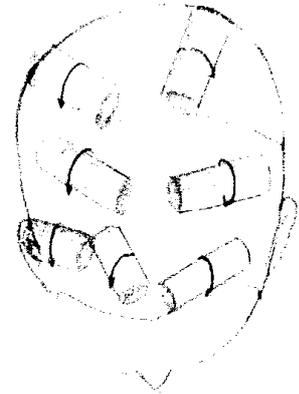
디자인 요소에서는 곡선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질감 처리로 변화를 주었다.



<그림 109> 작품 XI의  
도식화 1



<그림 110> 작품 XI의  
도식화 2



<그림 111> 작품 XI의  
도식화 2



<그림 112> 작품 XI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113> 작품 XI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114> 작품 XI의  
시술후(측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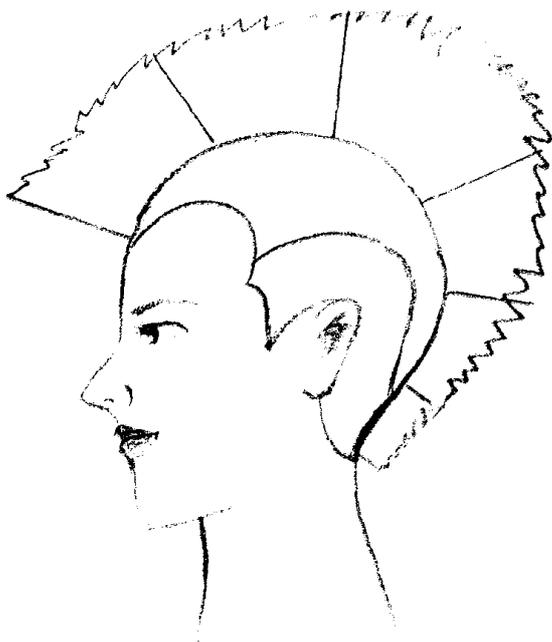
작품 X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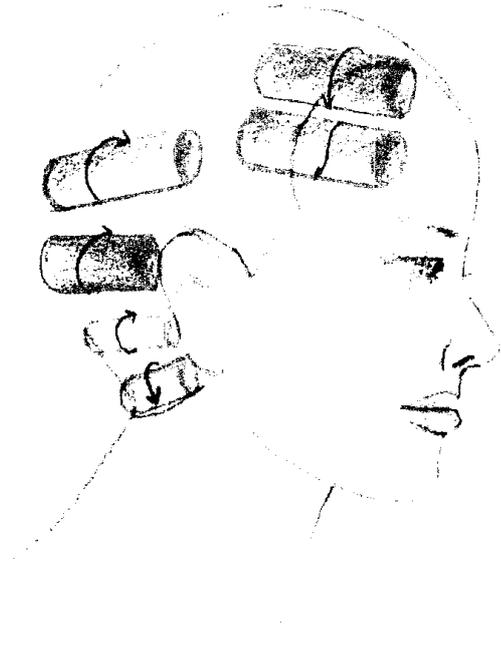
<그림 115> 작품 XII의  
시술전 사진

(그림 115)는 계란형의 남자모델 모습으로서, (그림 116)과 (그림 117) 그리고 (그림 118)은 각각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자 모델과 같이 세팅 처리하여 변화를 주었으며, 전체머리를 염색한 후, 건너뛰기 기법을 사용한 탈색으로 변화를 주었다. 즉 소재를 통한 질감 처리와 컬러의 의한 변화로 발랄한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그림 119) (그림 120).



<그림 116> 작품 XII의 도식화 1



<그림 117> 작품 XII의 도식화 2



〈그림 141〉 작품 XII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116> 작품 XII의  
시술후(정면) 사진



<그림 116> 작품 XII의  
시술 후(측면) 사진

## v. 결론

헤어커트디자인은 구체적인 대상 즉, 사람의 두상과 얼굴조건이라는 주어진 소재에 디자이너의 창의력과 기술력이 가미된 일련의 디자인 과정을 거치며, 이로 인한 결과는 작게는 사람의 얼굴모습을 형성하고 크게는 전체적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다른 분야의 조형활동과 달리 헤어디자인은 자신이 스스로에게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디자이너의 손과 창의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21세기에 이른 지금은 시각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도 중시되어지고, 특히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어스타일의 중요성도 더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미용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양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학계 또한 최근 몇 년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실무와 미용전문 디자이너 양성을 위하여 행하였던 교육을 통해 얻은 경험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커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전달방법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였다. 실무에서 피시술자가 시술후의 결과에 대한 반응은 시술자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피수술자의 시술 결과에 대해 디자이너와 피시술자가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형분야와 같이 일련의 디자인 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탐구적인 자세는 전문 디자이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하여 연구자가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헤어미용이 조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한 비달사순의 헤어디자인원리는 바우하우스의 기본이념인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심리적인 것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일반적인 디자인과 헤어커트와의 연관성을 연구함으로써 얼굴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디테일한 선의 변화와 색채, 질감 등의 적절한 조화는 전체적인 스타일의 이미지와 개성미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헤어커트디자인은 얼굴의 형태와 두상 골격구조에 따라 디자인요소의 적용방법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이미지 효과를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셋째, 얼굴의 형태와 두상의 골격구조, 모질, 전체적인 이미지 등은 헤어 커트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모발이라는 소재에 조형성과 구성미를 지닌 형태적 구성을 적용시키기 위하여서는 얼굴형과 두상의 골격구조에 대한 조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개개인의 얼굴형과 두상의 골격구조는 선천적인 외모조건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디자인의 요소와 원리를 잘 활용시킨다면 외모가 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섯째, 헤어커트디자인에 있어서 도식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활용은 시술자와 피시술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게 하며, 디자인 전개와 디테일한 스타일의 변형 실습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특히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한 스타일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또한 이와 같은 작업은 고급 미용 문화 시대에 적합한 전문 디자이너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기도 한다.

여섯째, 개성미가 중시되는 현대사회에서 시술자의 개성을 매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시술자와 피시술자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사료되어진다.

실무에서 얻은 경험을 학문적으로 접목시킨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전문디자이너를 위한 교육에 활용됨으로써 헤어미용의 커트 교육의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내 단행본]

- 김민선, 『Hair School』, 유신 문화사, 2001
- 곽형심 외, 『Hair Color Dressing』, 청구문화사, 2000
- 권은숙,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웅진출판, 1995
- 권상구, 『기초디자인』, 미진사, 2002
- 데이비드 라우어, 『조형의 원리』, 미진사, 1992
- 류은주, 『헤어 커트 II』, 청구 문화사, 2001
- 민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9
- 민봉기, 『연대별로 본 헤어 변천, 한국생활문화 100년』, 도서출판 장원, 1995
- 봉산균, 『기초 디자인』, 조형사, 1992
- 이연희·이운영, 『현대인의 이미지메이킹』, 청구문화사, 2002
- 이연희 외, 『패션문화』, 예학사, 2002
- 이연희, 이운영, 『내가 얼큰이라구요?』, 예학사, 2002, pp.22~43
- 우이우스윙, 『디자인과 형태론』, 국제, 1994
- 유송옥, 『복장의장학』, 수학사, 1995
- 유송옥, 『한국복식사』, pp.337-370, 수학사, 1998
- 정시화, 『현대 디자인 연구』, 미진사, 1997
- 조용진, 『얼굴 한국인의 낮』, (주)사계절 출판사, 2000
- 조필교, 정혜민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1998
- 막스피카르, 조두환 옮김, 『사람의 얼굴』, Das Menshengesicht, 도서출판 책 세상, 1994
- 지상기, 『커트 論·學』, 고문사, 1999

전선경 외, 『미용 미학과 미용 문화사』, 청구문화사, 2001

Beauty & Health 연구회, 비달사순 50년사, 현문사, 2001

### [외국서]

Francois B.(198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New York: Thames and Hudson Ltd, pp. 213-276.

Powell, F. W.(1984). *Color: And How to Use It*. CA: Walster Foster Pub. pp.2-3.

Prestel Verlag, *Icone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Munich·London·New York

Robim Bryer, *The History of Hair*, pp. 108-139, Phillip Wilson, 2000

TOMOTOMO, 新美容出版株式會社, 1999

Kazuhide Inoue, *Zone And Section*, 新美容出版株式會社

Kaiser, S. 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2nd Ed.). New York: Macmillan.

Teruko Kobayashi, 『the Best Make - up』, 동경, Kodansha Ltd, 1985, P10  
2 - 109

Vidal Sassoon and Bauhaus, Cantz, Vetlag, Senefeldern, str. 9, 73760, ostfildern, in the USA

VIDAL SASSOON, 『CUTTING HAIR THE VIDAL SASOON WAY』, Butterworth - HeiNEmann, A division of Reed Educational and Profesional Publihing Ltd.

ZoneAnd Section, 新美容出版株式會社

松岡 武(1999). 色彩とパーソナリテイー. 東京: 金子書房

瀧本孝雄. 藤澤英昭, 入門色彩心理學. 東京: 大日本圖書, 1996

## [학위논문]

김복숙, “여성 헤어스타일의 인상 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9

김은희, “여성의 머리 형태와 장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김양휴, “패션 헤어스타일에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김희숙, “20세기 서구 여성 헤어스타일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 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도주연, “Hairstyle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변화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박길순, “한국 현대 여성 복식의 발전에 미친 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안현경, “20세기 서구 여성의 머리 형태의 변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엄소희, “핑크 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윤지성, “헤어 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수정, “패션 잡지 광고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이화순, “한국여성의 Make-UP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전선정, “서구 여성의 머리 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3.

정상숙, “한국 여성의 수발 양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조미영,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정기 간행물 외 기타]

동아대백과사전. 16권, 동아출판사, 2000

복식 22호, 1994

한국 예술 학회지, 2002

한국 미용 학회지, 제6권 제3호, 2001

뷰티투데이, 2000, 8

중앙일보, 2002, 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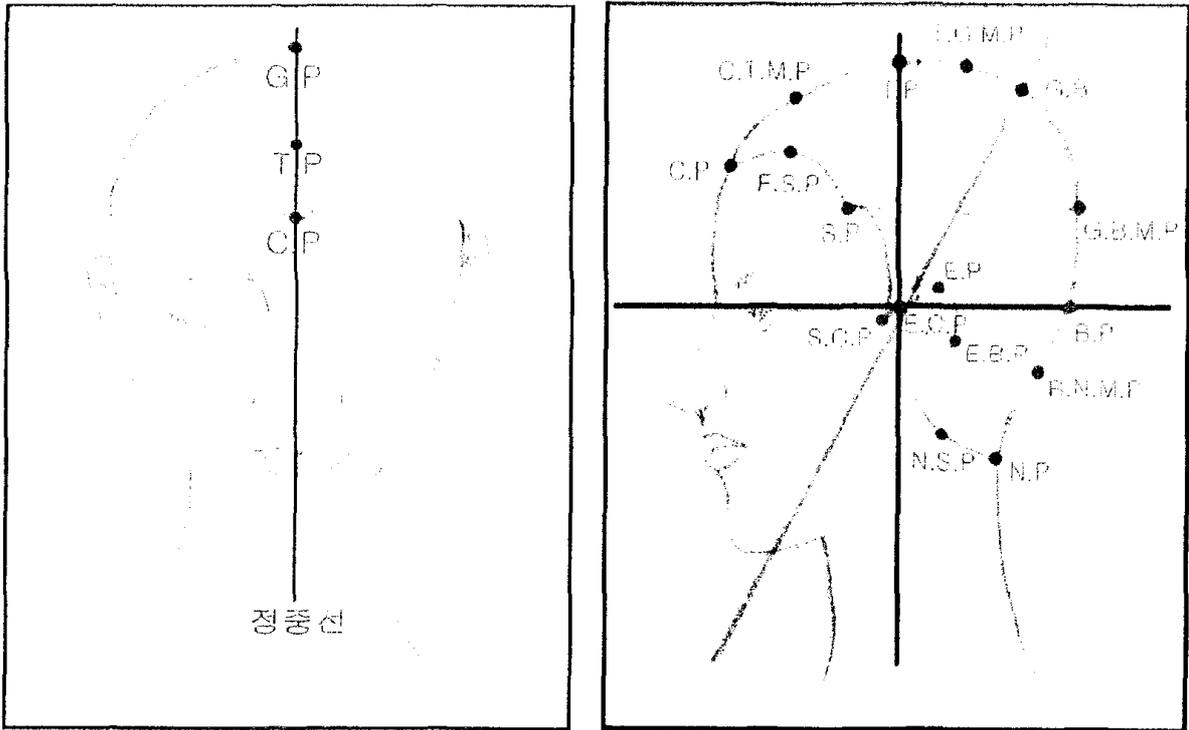
조선일보, 1970, 8, 15

한국 장업사, 대한화장품 공업협회, 1986

페루큐리어, 한국판, 예림, 2001

WELLA ESTETICA

## 부 록



1. center point(C·P)
2. top point(T·P)
3. golden point(G·P)
4. ear point(E·P)
5. back point(B·P)
6. nape point(N·P)
7. side point(S·P)
8. side corner point(S·C·P)
9. ear back point(E·B·P)
10. center top meduium point(C·T·M·P)
11. top golden meduium point(T·G·M·P)
12. golden back meduium point(G·B·M·P)
13. backnape meduium point(B·N·M·P)
14. fiont side point(F·S·P)
15. nape side point(N·S·P)

# Abstract

## The study of the Model of hair design -Focused on hair cut

Ha, Kyoung-yu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e instinct of pursuing beauty has been widely spread all over the world for a long time, and some of the primitive expressions to satisfy the instincts of pursuing beauty have been the style of dresses, cosmetics, and hair beauty, etc.

Among various beauty cultures, hair design has also been one of cultural products, which reflect the living cultural and art style of an age, and is now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total fashion, harmonizing it with dresses, cosmetics, and accessories, etc. Because hairstyle is the most visible part on a human body, changes in hairstyle can damage or improve one's own original impress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pply different hair design technique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face shapes, and to prepare a basic frame which can be applied to practical hair design businesses. This purpose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theoretical, systemic and academic background of hair design is unstable compared to the growth of practical hair design

businesses, though there have been brilliant technical developments reflecting new foreign technologies and fashions after having introduced western cultures.

Under the hypothesis that the real value of hair designs are revealed only when a different cutting technique is applied for each face shape, this research was done to prepare persuasive modeling techniques based on design factors and principles such as in other modeling fields.

For successive research, several works and their pictures were made after differently applying general design factors and principles to real modes whose face featur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research,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the hair cut techniques of Vidal Sassoon, which applied the modeling principle of Bauhaus to practical hair design businesses, and the modeling principle of dress style were examined and used in producing work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outlined below.

Firstly, practically using the lines of face shapes were effective for setting lay out before each operation. Secondly, practically using the design factors and principles based on the features of face shapes made each operation easy and increased the creativity of operators. Thirdly, the schematization of hair design made it possible to apply various designs and to change designs in a short frame. This increased communications between operators and clients by them expressing satisfaction about each design. Fourthly, the presentation of expected face images using illustration made it possible to predict the shape after each operation, and diminished possible conflicts after each operation.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was that there had been few prior researches in this field different from other modeling fields such as fashion

etc., and the barometer of beauty can be different from the viewpoint of a third party, operators or clients.

Therefore, if there is a subsequent research about measuring images which can provide objectivity to the presented works, it will be more easily done to prepare basis for hair cut design techniques.